

만남



대한예수교
장로회 **영락교회**

09 2024
통권 606호

영락이여, 올라가라

(사사기 1:1~2)



표지설명

가을의 시작, 우리 마음도 새롭게 시작할 때입니다.
회개를 통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이 가을, 조용히 무릎 꿇고 깊은 회개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일러스트 이승애 작가

영락교회 신앙지도 원칙

-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
- 성서적 생활윤리의 훈련
- 교회연합 정신의 구현
- 세상에서 하나님공의 실현

5대 본질



9월 목회력

- 01 주일 · 찬양예배 성찬, 유아세례식
- 06 금 · 연합권찰모임 하반기 개강
- 07 토 · 영락가족 특별새벽기도회, 토요직장권찰모임
- 08 주일 · 제직회
- 22 주일 · 사회봉사주일
- 22 주일~11/17 주일 · 총동원전도캠페인
- 27 금 · 심방준비회
- 29 주일 · 전교인 만남주일

만남

2024년 9월호
통권 606호

Contents



이달의 말씀

02 가을 숲으로의 산책을 꿈꾸는 이들에게 김운성

특집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① 회개

05 회개, 하나님을 만나는 일차 관문 이태형

08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김경옥, 인미

기획연재

10 인류 최초의 찬양과 찬양대 박신화

12 예수 부활의 살아있는 증언자 정희성

땅끝까지 이르러

15 하나님의 선한 창조를 돌보는 일 조두형

18 영락이여, 복음 전하며 올라가라! 전도부

다음세대 / 청년광장

19 나의 기도 최아영

20 교회학교의 여름 김다연, 김지유, 배세인, 이제훈

24 영어로 하는 영락 어와나 국제예배부

26 35년의 기도와 함께하는 신앙 공동체 이서연

28 여름 그리고 젊음 김일현, 방동욱, 명금찬, 전유안

34 벽화 작업에서 배우는 생명과 섬김의 의미 경소연

36 온 가족이 함께 섬긴 이웃사랑 조예슬

만남 그리고 사람들

38 신앙의 여정을 함께 쓰담쓰담하며 소그룹전담부

41 하나님의 평화를 전하는 아름다운 발걸음 흥신실

영락의 울타리

42 터닝 포인트 '하나'로는 부족합니다 강주심

44 폐허에서 다시 복음의 여정으로 양해경

48 2024 북적북적 독서행사 공모전

교회소식

50 고행석 협동선교사, 싱가포르한인교회 부임 외

56 하프를 연주하는 다윗왕 정재원

57 영락시어터 9월 상영 영화



가을 숲으로의 산책을 꿈꾸는 이들에게

김운성 위임목사

그러나 너희와 그사이 거리가 이천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 보지 못했음이라 하니라(여호수아 3:4)

하나님께서서는 사람을 직접 보행하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은 걷는 존재입니다. 걷는 존재인 사람에게 길은 필수적입니다. 사람은 길을 내고, 길은 사람을 걷게 합니다.

길을 따라 이동하는 방법은 여럿입니다. 요즘은 빠른 이동이 강조되어 속도를 중시합니다. 빨리 가려고 자동차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를 타고 달리다 보니 걷기가 퇴조하면서 다리는 약해지고 머리만 커졌습니다. 머리가 커진 사람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원하는 방향으로 멋대로 달립니다. 그러나 모르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속도보다 중요한 게 많다는 사실입니다.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누구와 동행하는가?’입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은 걷기가 기본이었습니다. 그들은 걸어서 애굽을 떠났고, 걸어서 홍해를 건너고, 걸어서 광야를 통과했습니다. 출애굽의 걷기에

서 동행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백성의 앞에서 가시고, 때로는 함께 가셨으며, 때로는 뒤에서 걸으면서 적을 막아 주셨습니다.

또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방향이 틀리면 속도가 빠를수록 위험합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에서도 그랬습니다. 출애굽의 길은 이스라엘이 가보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광야는 더 그랬습니다. 당시 아무도 광야를 걸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광야를 걸어본 유일한 사람은 ‘모세’였는데, 미디안 광야에 국한되어 있었고, 그나마도 장인 이드로의 거주지 근처가 다였습니다.

여호수아 3장 4절에서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는 요단강 앞에서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 보지 못했음이라” 그들은 가보지 못한 길을 가야 했습니다. ‘지나 보지 못한 길’이란 구절은 인생길의 성격을 잘 보여줍니다.



모세 때부터 이스라엘의 출애굽 과정에서 그들이 가보지 않은 길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방향을 정하여 갈 길을 보이셨고, 그들은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의 구름이 머무는 곳에 그들도 머물고, 구름이 떠오르면 출발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향으로 걸어서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도착했습니다. 그 과정은 날마다 기적의 연속이었고, 매 순간 은혜의 여정이었습니다.

산책으로서의 신앙 : 경주가 아닌 사색

산책 속에서 발견하는 동행의 가치

예수님과 함께 걷는 진리의 길

성도의 걷기는 스피드를 측정하는 경주라기보다는 산책에 가깝습니다. 경주는 이기려는 욕심과 스트레스를 가져옵니다. 또 이긴 자에게는 교만을, 진 자에게는 좌절을 줍니다. 그러나 산책에는 승자도 패자도 없고, 욕망이나 스트레스도 없습니다.

산책은 삶을 깊이 맛보고 느끼게 하는 사색을 가져옵니다. 산책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음미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나그네임을 깊이 깨닫습니다. 깊은 산책에 익숙한 사람에게서는 겸손의 향기가 납니다.

그리고 산책은 방향에 대해 숙고하게 합니다. 그 길을 먼저 걸으며 흔적과 자취를 남긴 선배들을 떠올립니다. 그들의 삶을 존중하며 향기를 맡습니다. 선배들이 먼저 간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조금 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며 걸었듯이, 우리도 그렇게 걸으면 됩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는 그 길을 걸어본 적이 없기에 조심스럽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걷습니다. 시편 121편 1~2절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라는 기도는 경주자가 아니라, 산책하듯 걷는 순례자의 기도입니다.

무엇보다 산책은 동행의 의미를 사색하게 합니다. 빠르게 달리려고 무시하거나 경쟁했던 소중한 이들의 손을 잡게 됩니다. 함께 걷고, 함께 사는 사랑을 배우게 합니다. 산책은 인생의 모든 것은 결국 사랑으로 귀결됨을 깨닫게 합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는지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걸으면 됩니다. 프로스트의 시에서처럼 ‘가시 않은 길’에 대해 아쉬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어 나는 사람이 덜 다닌 길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인생을 이처럼 바꿔놓은 것입니다”라는 시인의 고백처럼, 예수님은 진리를 갈망하는 소수의 사람만이 가는 진리의 좁은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 걸으면 날마다 산책에 성공할 것이고, 그 길은 천국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가을이 다가옵니다. 단풍으로 찬란하게 물이 들 가을의 숲으로 산책을 떠나려는 성도들과 나누고 싶은 단상입니다. **만남**

회개(悔改)

HOLY
BIBLE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단순한 믿음의 고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 변화하며, 진정한 회개와 성화(聖化)의 실천 가운데 신앙의 품격을 높여가는 여정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기 위한 첫 관문입니다. 이는 단순한 후회나 반성 이상의 것으로, 삶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그리스도께로 돌리는 변화이며, 위로부터 부여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번 호에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의 핵심 주제이자 일차 관문인 ‘회개’를 깊이 있게 다루며, 우리의 신앙 여정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회개, 하나님을 만나는 일차 관문

요즘 인터넷상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는 87세의 복음전도자 허봉량 선교사는 얼마 전 계단에서 넘어지는 큰 사고를 당해 고관절이 부러지는 상처를 입었다. 일반적으로 고령자가 고관절을 다치면 다시 일어나기가 쉽지 않지만, 허 선교사는 다행히 수술을 받고 회복하여 다시 강단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

수술 후 허 선교사는 ‘하나님이 왜 나를 살려주셨을까?’를 깊이 생각했다고 한다. 필자는 그와의 인터뷰에서 “하나님이 살려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라고 물어보았다. 내심 ‘복음을 더 잘 전하라고’라는 ‘모범 답안’을 예상하면서 말이다. 그러나 허 선교사는 예상과는 다른 대답을 내놓았다. “아직 남은 회개할 시간을 주시기 위해서 살려주셨어요” 울림이 있는 답이었다.

“그날 정말 죽을 수도 있었어요. 계단에서 떨어지면서 뇌진탕으로 그냥 갈 수도 있었는데 ‘왜 나를 살려주셨을까’ 생각하니 결론은 하나더라고요.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게 살았던 것을 마저 회개하고 오라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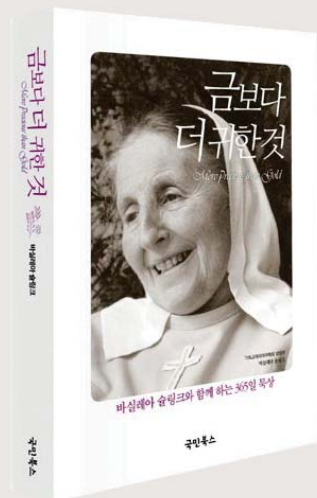
허 선교사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후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선포하신 첫 번째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

야한다고 강조한다. 그는 강단에서 메시지를 전할 때마다 회개의 삶을 강조하고 있다.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 마리아자매회

10여 년 전 허 선교사가 독일 다름슈타트의 여성 개신교 공동체인 마리아자매회를 방문했을 때, 가장 많이 들었던 단어는 ‘회개’였다. 여성 수도사들은 회개가 하나님을 만나는 일차 관문이며, 일회로 끝나지 않고 매일의 삶에서 반복되어야 한다고도 했다. 한 여성 수도사는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고요?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회개는 마리아자매회의 일상으로, 바실레아 술링크가 75년 전에 자매회를 시작한 목적 자체가 독일의 국가적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였다. 결국 마리아자매회는 회개의 공동체인 셈이다. 매일 회개의 삶을 살아서인지 마리아자매회에서 만난 여성 수도사들의 얼굴은 맑디맑았다. 그들은 이방인이 보기에 형편없는 음식을 먹고,



기도하며, 노동하는 단조로운 삶을 살고 있었지만, 그들의 모습에는 거룩한 신성과 깊은 평화, 그리고 잔잔한 기쁨이 배어 있었다.

헤른후트의 모라비안 형제단과 회개의 중요성

독일 북부의 작은 마을 헤른후트에서는 진젠도르프와 모라비안 형제단이 펼쳤던 위대한 선교의 흔적들을 발견할 수 있다. 1700년대 복음을 들고 산을 넘고 강을 건넜던 그들의 열정은 어디에서 나왔을까? 선교지에서 뼈를 문졌다는 결연한 의지로 스스로 관을 찌고 나갔던 그들의 헌신 비결은 무엇이었을까? 분명 그들이 깊은 믿음의 대상을 만났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다.

헤른후트의 모라비안 형제단은 회개를 통해 하나님을 만났고, 그와의 깊은 대면이야말로 그들이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음이 분명하다. 최근 한국을 방문한 헤른후트 출신의 레이몬드 선교사는 필자에게 “모라비안들은 매일 회개했습니다. 그 길만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든요”라고 말했다.

회개를 지상명제로 삼는 이들의 신앙

허봉량 선교사, 마리아자매회 수도사들, 그리고 헤른후트의 모라비안 교도들은 모두 회개를 삶의 지상명제로 삼아 살아가고 있다. 이들에게 크리스천으로서의 가장 간절한 소망은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소중한 목표라면, 회개는 그 목표를 이루는 최우선적인 필요조건이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회개(悔改)’의 헬라어 원어는 ‘메타노이아(metanoia)’로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다, 돌이키다, 마

음을 변경하다’란 뜻이다. 갈보리 십자가가 상징하는 것도 바로 이 ‘돌이킴’ 또는 ‘터닝(Turning)’이다. 우리에게 돌이킬 수 없는 중한 죄는 없다!

마틴 로이드 존스의 회개 5단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회개할 수 있는가?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였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는 다윗의 회개가 담긴 시편 51편을 통해 ‘회개의 5단계’를 제시했다.

- ① **죄의 자각과 시인** : 자신이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시인하는 것이다.
- ② **죄의 본질 파악** : 우리가 저지른 죄의 성격과 본질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 ③ **하나님 앞에서의 고백** : 자신의 삶과 행동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그분의 뜻을 거스르고 있음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이다.
- ④ **변명 없는 자책** : 자신이 어떤 변명이나 구실도 내세울 수 없음을 발견하는 것이다.
- ⑤ **본성의 악함 인식** : 자신의 본성이 날 때부터 악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인식하는 것이다.

그가 제시한 ‘회개의 5단계’에 따르면 회개의 본질은 자신이 저지른 죄의 심각성을 깨닫는 것이며, 회개의 궁극적 목표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 외에는 그 무엇도 중요치 않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다.

진정한 회개의 증거

정말로 회개했는지를 증명할 방법이 있는가? 간단하다. 그 사람이 이전에 가던 길에서 터닝했는지 여부를 보는



헤른후트에서 기도하는 중보자들

것이다.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지 않고, 해야 할 일을 실천에 옮기지 않는 한, 그러니까 진정한 돌이킴이 없는 한, 그 사람은 회개한 것이 아니다. 그저 슬퍼하며 후회만 한 것이다. 메타노이아, 즉 회개는 그릇된 것에 비수를 꽂고 하나님 쪽으로 돌아서는 것이다.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는 타락한 인간을 단순히 개선이 필요한 불완전한 피조물로 보지 않았다. 그는 인간을 무기를 든 반역자로 보았으며, 이 반역자의 길에서 벗어나는 것은 무기를 내려놓고 항복하면서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이라고 했다. 잘못된 길을 걸어왔음을 깨닫고, 삶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준비를 하는 것이 바로 회개의 길이다. 그러나 인간은 스스로 회개할 수 없고, 회개는 전적으로 위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루이스는 언급했다.

회개의 결과: 기쁨과 사랑의 회복

회개의 결과는 무엇인가? 그것은 기쁨의 회복이다.

하나님은 우리 죄악을 용서하시는 신이시다(미가서 7:18). 주님은 잃었던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늘이 이를 보고 함께 기뻐한다고 말씀하셨다(누가복음 15:7). 죄 용서함을 통해 우린 기쁨과 사랑을 회복하고, 그때부터 비로소 진정한 사역을 행할 수 있게 된다. 오직 거기에서만 살리는 생명수가 흘러나올 수 있다.

회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일차 관문이다. 아직 우리에게 삶의 시간이 남아 있다면, 그것은 회개의 시간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자. 지금 가던 길을 멈추고, 조용히 무릎 꿇고 회개할 수 있는 은총을 달라고 간구하자. 그리고 나의 반역자의 삶에 가차 없이 비수를 꽂고 돌아서자. 이것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은혜이며, 하늘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최고의 뉴스다. **만남**

이태형 소장 _ 기록문화연구소
전)국민일보 대기자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 1907 평양에서 2024 서울까지!

이른 새벽 4천 5백여 명(주최 측 추산)의 성도들이 운집한 서울시청 앞 광장은 회개 기도의 음성들로 가득 채워졌다. 한국교회총연합(이하 한교총, 대표회장 장종현 목사)과 창사 70주년을 맞은 CBS가 민족의 등불이 된 1907년 평양 대부흥의 역사를 재현하기 위해 준비한 '미스바 회개성령 대성회'가 8월 24일(토) 오전 5시 서울광장에서 열렸다. 한교총 이철 공동대표회장의 개회선언으로 시작된 성회는 3부에 걸쳐 회개에 초점을 두고 말씀과 기도, 찬양의 향연으로 펼쳐졌다. 참석자들은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치 않으신다'(시편 51:17)는 말씀을 바라보며 그리스도인의 거듭난 삶과 교회의 갱신, 한국 사회의 정의 회복을 위해 함께 기도했다.



“기독교는 회개로부터 시작됐다”

‘나는 죄인으로소이다’(누가복음 18:9~14)라는 제목의 1부 설교를 전한 우리 교회 김운성 목사는 “기독교는 회

개로부터 시작됐다”고 강조하며 “한국 교회는 회개를 부흥과 번영으로 대체했고 이를 추구한 결과 회개가 사라졌다”면서 회개의 중요성에 대해 전했다. 한국 교회



회개운동의 시발이 된 1907년 평양대부흥운동은 길선주 장로의 “주여, 나는 죄인으로써이다” 라는 공개적인 회개를 통해 대부흥운동으로 확장된 사실을 언급하며 “평양대부흥운동은 운동이 아니라 성령님이 일으킨 역사이므로 ‘평양대회개운동’으로 이름을 붙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 2007년 평양대부흥운동 100주년 당시의 아쉬움을 토로한 김 목사는 “진정한 회개를 통해 결과적으로 부흥이 온 것인데, 우리는 어리석게도 부흥이라는 목적 아래 회개를 수단으로 이용했기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고 통렬히 반성하면서 회개가 시작되며 부흥은 그 자연스러운 결과임을 역설했다.

2부 설교를 전한 이기용 목사(신길교회)는 ‘기도면 충분합니다’(마가복음 9:29)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오늘날 현대문명의 풍요함 속에서 오히려 위기에 처한 한국 교회의 문제는 영적전쟁이자 기도의 문제”라고 전하며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내게로 돌아오라: 회개의 초대와 하나님의 약속’(말라기 3:7)이라는 제목으로 3부 설교를 전한 한국중앙교회 임석순 목사는 “우리는 도둑”이라고 통회의 말씀을 선포하며 “회개가 없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나아갈 수 없다”고 교회의 자성과 기도를 강조했다.

공동회개기도문 낭독…‘구별된 복음의 삶’등 6가지 다짐
설교에 이어진 기도회에서는 김학중 목사(꿈의교회),

윤호균 목사(화광교회), 김대성 목사(소명중앙교회)가 교회의 회개와 부흥, 다음세대를 위해 뜨겁게 기도회를 인도했으며, 대표기도를 맡은 천영태 목사(정동제일교회)가 “우리의 기도가 입술에만 머물지 않고 삶속에서 회개의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이날 성회에서는 우리 교회 시온찬양대원 약 100여 명을 포함 500여명으로 구성된 연합찬양대가 ‘이제야 돌아옵니다’라는 찬양을 통해 참회와 갱신의 다짐을 아름다운 선율로 표현했다.

두 시간에 걸쳐 진행된 대성회는 참석자들이 ‘주님 회개합니다. 거듭난 영으로 살아가겠습니다’는 제목의 공동회개기도로 마무리 됐다. 육순중 CBS이사장이 낭독한 공동회개기도문에는 △구별된 복음의 삶 △거룩한 교회의 회복 △창조질서 회복 △약자 보호와 나누는 삶 △평화의 도구 △CBS기독교방송의 사명 등 여섯 가지 다짐이 담겨있다.

한국기독교선교 140주년을 앞두고 한국 교회에 ‘회개’라는 초교파적 화두를 던진 ‘미스바 회개성령 대성회’는 오는 10월 25일(토) 부산 포도원교회(김문훈 목사)에서 ‘미스바 밤샘 회개기도 성회’로 이어질 예정이다. **만남**

공동 취재 김경옥, 인미 기자

인류 최초의 찬양과 찬양대

성경에는 인류 최초의 음악에 대한 기록이 담겨 있다. 창세기 4장 21절에서는 라멕의 아들 유발이 언급되며, 그는 ‘수금을 타고 통소를 부는 모든 사람의 조상’으로 소개된다. 이 기록은 인류가 처음으로 음악을 창조하고 즐기기 시작한 시점을 나타낸다.

히브리인들의 찬양: 모세의 역할

모세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넌 후, 주님의 높고 영화로우심을 찬양했다(출애굽기 15:1~21). 이 찬양은 히브리인 최초의 공식적인 찬양으로 여겨진다.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이전에도 찬양을 드렸겠지만, 궁중 교육을 받은 모세는 시를 쓸 줄 알았고 직접 노래를 지어 부를 수 있었다. 모세는 제대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고, 백성들에게 그 찬양을 따라 부르게 했으며, 자식들에게도 가르치도록 명령했다(신명기 31:22). 이것이 구약 최초의 찬양에 대한 기록이자 전통이라 할 수 있다.

다윗과 최초의 찬양대

구약 시대 최초의 찬양대는 다윗왕이 조직한 288명의 찬양대였다. 블레셋은 아벡 전투에서 빼앗은 언약궤를 그들의 신전에 두었다. 하지만 자기들이 섬기던 신들의 허리와 목이 부러지는 사건에 경악한 블레셋은 언약궤를 기랴여아림으로 보냈고, 그곳에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었다. 다윗은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되찾아 오고자 했으나, 1차 법궤 영접식은 준비 부족과 옷사의 죽음으로 실패하고, 언약궤는 오벧에돔의 집으로 옮겨졌다(역대상 13:13). 이후 3개월 동안 오벧에돔은 큰 축복을 받았고, 실패의 원인을 찾은 다윗은





(출애굽기 19:10~11) 2차 법궤 영접식을 준비하게 되었다. 이때 288명으로 구성된 최초의 찬양대가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다윗은 여호와와의 명령에 따라 백성을 깨끗하게 하고, 법궤를 보려는 마음을 버리며, 그들의 몸을 성결케 하라는 지시에 따라 레위 족속으로 찬양대를 조직했다. 그는 레위인 어른들에게 명하여 노래하는 자들을 세우고 비파, 수금, 제금 등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했다.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 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며 감사하며 찬양하게 했으니 아삽은 우두머리요”(역대상 16:4~5 상반절)에서 보듯이 레위인 중 남자 어른들로 찬양대를 조직하게 했고, 다른 악기들과 함께 찬양하게 했다. 그리고 아삽을 찬양대장으로 세워 찬양대를 이끌게 했고, 이들은 모두를 대표하여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 찬양대는 ‘노래하기에 익숙한 자’로 불리며, 구약 시대의 조직적이고 정규화된 찬양대 모습을 갖추었다(역대상 25:7).

다윗은 이 찬양대를 288명으로 구성하고, 12명씩 24개 그룹으로 나누어 군대와 같은 체계로 편성했다. 이들은 레위인으로 구성된 4,000명의 찬양대를 가르치는 역할을 담당했을 것이다.

또한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해 모든 자재와 기물을 준비했을 뿐만 아니라, 예배 음악의 제도적 체계도 마련했다. 그는 시편의 절반을 작시하고 악기를 제작하며, 찬양대를 조직하여 찬양과 예배를 더욱 체계적으로 발전시켰다. **만남**

※ 교회음악의 기원과 역사, 두 번째 이야기는 다음호에 이어집니다.



박신화 장로
마포·영등포교구
갈보리찬양대 지휘

예수 부활의 살아있는 증언자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요한복음 11:25)

하나님을 믿으면 죽어서뿐 아니라 살아서도 부활할 수 있을까?

우연히 한 할머니를 인터뷰한 후 나는 이를 확실히 믿게 되었다.

불편할 수도 있겠으나 마음을 열고 끝까지 읽어주시라.



지옥 같은 위안부 경험과 지속된 고통의 삶

일제 강점기 군 위안부 경험은 인간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다 죽여 버린 것과 같다. 열세 살과 열여덟 살 때 두 번이나 위안부 생활을 했던 길원옥 할머니 역시 그러했다. 할머니는 1928년 평안북도에서 태어났다. 그런데 가난해도 너무 가난해 어린 시절부터 세끼 밥 얻어 먹는 것조차 미안해했다. 그러다 돈 벌 생각에 만주에 갔다가 위안소에 수용되어 실 새 없이 일본군을 상대했다. 지옥 같은 생활이었지만, 온몸이 피로 물들 정도로 맞곤 해 도망 나올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결국 할머니는 자기 인생은 “이미 십 대 때 다 끝났다”라고 했다.

해방 이후에도 죽음 같은 할머니의 삶은 계속되었다. 1945년 할머니는 해방 소식을 들었다. 그러나 이미

자신은 완전히 파괴되었다고 생각했던 할머니는 “좋은 것도 몰르구, 이젠 살았구나 생각도 없구… 거저 무의하고, 허무하고, 지난”할 뿐이었다. 인천항에 내렸지만, 고향으로 돌아갈 수도 없었다. 그래서 깡패 중의 깡패와 살았다. 힘 있는 사람과 살면 누구도 자신을 못 건드릴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 역시 폭력, 외도, 수시로 진 많은 빛 때문에 결국 도망쳐 나왔다. 이후 할머니는 오류동, 포천을 전전하며 행상, 돈놀이, 첩살이 등을 하며 살았다.

작은 선행에서 시작된 삶의 변화

서른 살쯤 되었을 때 할머니 삶에 작은 변화가 생겼다. 할머니는 자신도 힘들었지만, 조금이라도 착한 일을 하려 했다. 가령 지나가는 거지한테 줄 돈이 없으면 물이라도 끊여 대접했다. 어느 날 어린 처자가 아기를 낳았는데 돈이 없어 태줄도 못 자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에 친구들과 흰쌀밥, 미역국, 기저귀를 챙겨 동네 병원에 갔다가 그녀가 놓고 간 갓난아이를 영겁결에 데리고 왔다. 할머니는 이후 ‘한 달이면 스무 여드레’ 즉 거의 매일 병치레하는 약하고 붉은 아기를 정성껏 돌보



정희성 교수
이화여대 기독교학과

았다. 번데기 장사, 옥수수 장사, 계란 장사 등 온갖 일을 닦치는 대로 하며 공부시켜 아들은 결국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목사가 되었다. 또 할머니는 오갈 데 없는 미혼모를 자기 집에 살게 해 아기를 무사히 낳고 결혼도 할 수 있게 했다.

기독교 신앙으로 다시 찾은 평안

마흔 살 무렵 할머니는 기독교인이 되었다. 할머니는 열심히 주일학교에 다니던 아들의 간곡한 부탁에 친구와 함께 여의도 부흥 집회에 간 후 교회에 정식으로 등록했다. 이후 할머니는 주일예배, 수요일예배, 금요일모임, 새벽기도회까지 빠짐없이 참석했다. 또 교회의 음식 봉사, 경조사 준비를 도맡아 했고, 전도도 열심히 해 전도왕, 집사, 권사가 되었다. 처음 교회에 다닐 무렵 할머니는 환상에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을 보았다. 하지만 할머니는 너무 무서워 예수님을 보지 않으려고 눈을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곤 했다. 이후 사오십 년 가까이 열심히 교회에 나가며 할머니는 바뀌었다. “하나님만 생각하면 편해, 무섭지 않고”라고 말씀하셨다. 또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를 최고로 좋아하는 찬송으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빌립보서 4:4~9)를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로 꼽았다.

인생이 다 끝났다고 했던 할머니가 어떻게 노년에 감사와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병원에서 아기를 데려온 후 할머니는 자신처럼 죄 많은 사람 밑에서 자라야 하는 아기가 너무 불쌍했다. 그러다 열심히 불공을 드리면 아기가 출세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절에 나갔다. 그러나 이는 불교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은 아니었다. 당시 할머니는 교회 갈 생각도 해봤지만, 마음의 상처가 너무 커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어야 하는 교회가 너무 부담스러웠다. 또 거룩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 된 모습이 드러나는 것도 감당할 수 없었다. 그래서 그저 아무 말 없이 물건만 조용히 놓고 와도 되는 공양을 선택했던 것이다. 그런 할머니가 어떻게 그렇게 달라졌는가? 하나님은 그 세월 동안 무엇을 하신 것일까?

먼저, 할머니가 말씀하시듯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 흔히 할머니 같은 경험을 한 경우 전능하신 하나님이나 구원자 예수님이 안 보인다고 한다. 그런데 그때 부상하는 하나님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다. 성령 하나님은 방언과 같은 신비한 경험을 하기도 하시며, 죽음과 절망을 넘어 끝없이 희망을 품게도 하신다. 희망을 잃었을 때에는 우리의 생명을 기운을 불어넣어 바람처럼 물처럼 끈질기게 틈을 내, 살아 버티도록 하신다. 할머니는 삶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았고, 살아 있어도 사는 게 아니라서 산송장처럼 살았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성령 하나님은 자살 충동이 생길 때면, 낳은 엄마에게 버려진 아기를 또 버릴 수 없다는 마음을 생기게 했다. 거지들을 볼 때면 불쌍한 마음이, 아기가 울고 웃을 때면 함께 울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했다. 그런 소소하고 희미한 몸과 마음과 감각의 일깨움, 건드림, 보듬음의 꾸준한 역사 속에서 할머니의 무너졌던 마음은 마른 뼈가 일어나듯 조금씩 살아나게 되었다.

할머니에게 예수님은 또한 ‘바른 분별력’을 갖게 하신 분이시다. 할머니는 한국 전통의 가부장 문화 때문이었던지, 지독한 가난 때문이었던지, 어린 시절부터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미안해했고, 자신의 지나친 희생은

당연시했었다. 가령, 고물상이던 아버지가 실수로 장물을 팔아 감옥에 갇혔을 때 어머니께 ‘자신을 팔아’ 아버지를 빼내라고 했었다. 또 우스꽝스럽게도 헤어진 남자의 처자식들에게도 생활비를 대주었다. 남자가 계속 다른 첩을 두어 본가를 돌보지 않자 “까짓거 나 하나 희생해서” 그들을 먹여 살리고자 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난 후, 할머니는 무엇보다도 먼저 그런 행동이 모두 어리석은 짓임을 깨달았다. 그래서 돈이 아쉬워 오히려 말리는 본부인에게 목돈을 떼어주고서까지 관계를 청산했다. 할머니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어렵푼 이나마 자기도 소중한 존재임을 자각했던 것 같다. 그래서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첩살이, 돈놀이 등을 끊고 바르고 선하게 사는 삶,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삶을 향해 결단했다.

창조주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삶

창조주 하나님은 할머니를 ‘아무것도 아닌 것’에서 ‘귀하다 귀한 존재’로 다시 창조하셨다. 해방 후 오랫동안 일본 정부뿐 아니라 한국의 대중들도 군 위안부는 그냥 이름 없이 소리 없이 조용히 사라지길 기대했다. 대다수 기독교인도 이들을 죄인 중의 죄인으로 여겼다. 군 위안부 생활로 자궁마저 일찍이 들어낸 할머니 역시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사라질 수 있었다. 그런데 생물학적 어머니조차 될 수 없었던 할머니는 입양한 아들에게 ‘사랑받는 어머니’가 되었다. 미혼모 배 속에 있던 태아에겐 ‘생명의 은인이신 할머니’가 되었다. 교회에서도 어엿한 ‘전도왕’ ‘집사님’ ‘권사님’이 되었다. 그뿐 아니라 교회에서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주의 종의 어머니’가 되었다. 창조주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이 창조하신

본래의 모습대로 살도록 간절히 염원하시는 분이다. 창조주 하나님의 끈질긴 응원 속에 할머니는 시궁창에 던져져 버린 존재 같은 삶에서 원래의 자기 모습, 멋진 이름을 가진 존재로 새롭게 창조되었다.

할머니는 노년에 성서의 야곱 못지않은 미래세대를 향한 축복의 전달자가 되었다. 할머니의 목사 아들은 자신의 입양 사실을 나이가 꽤 들어서야 알게 되었다. 그리고 곧 할머니를 본받아 고아원에서 여아를 데려와 키웠다. 연약한 자를 돌보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할머니를 통해 아들에게까지 대를 이어 계승된 것이다. 할머니는 또한 자신의 군 위안부 경험을 세상에 담대히 증언했다. 그리고 베트남, 아프가니스탄 등의 전쟁 피해자 여성들을 만나 위로하고 다시 살 소망을 불러일으키셨다. 할머니는 후배 여성들이 자신처럼 끔찍한 경험을 다시는 겪지 않도록 그들을 깨우고 돌보고 축복하는 일을 계속하셨다. 일본에서 지진이 났을 때는 “일본 정부가 밭지, 사람이 밭냐” 하시며 일본 재해민들을 위한 성금도 보내셨다.

오늘도 죽을 것처럼 힘드신 분! 끝까지 살아 버티시라. 건강하게 오래만 사시라. 삼위일체 하나님 춤추듯 역사하셔서 반드시 새로운 삶을 경험케 하시리라! ‘할머니,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활의 살아있는 증인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만남**



하나님의 선한 창조를 돌보는 일

태초에 하나님이 선교하시니라

선교의 시작은 흔히 생각하는 '지상명령'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의 선교는 태초부터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셨고, 죄를 지은 후 숨은 아담을 찾아 "네가 어디 있느냐?"(창세기 3:9) 물으셨습니다. 인간이 처음 죄를 지었을 때도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모든 죄, 사탄, 죽음을 이길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처럼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 태초의 이



조두형 목사
선교부 전담

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선교라는 거대한 교향곡은 시작된 것입니다.

창조의 맥락에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세 가지 중요한 명령을 주셨습니다(창세기 1:28). 첫째) 생육하고 번성하라, 둘째) 땅에 충만하라, 셋째) 땅을 다스리라. 첫 번째 명령은 생물학적 번성에 중점을 두지만, 두 번째와 세 번째 명령은 문화적 번영과 풍성함, 그리고 변화를 의미합니다. 즉 이들 명령은 "문화를 형성하라"라는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문화선교는 이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세상을 선하게 돌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문화를 형성하고 보존하며 전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창조의 뜻에 순종하며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문화선교는 하나님의 창조 계획을 파악하고 구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세상의 문화적 도전과 교회의 응답

로날드 사이더는 그의 책 『그리스도인의 양심선언』에서 각종 통계 자료를 통해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고발합니다. 돈, 성, 이혼, 가정폭력, 인종차별과 같은 문제들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이 비신자와 전혀 구별되지 않는 견해와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한 기독교문화 연구기관에서는 미국인의 92%가 성경적 세계관이 아닌 혼합주의(syncretism)를 받아들이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연구는 미국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일곱 가지 세계관을 나열하며 1) 성경적 세계관, 2) 동양 신비주의, 3) 마르크스주의, 4) 이신론, 5) 허무주의, 6) 포스트모더니즘, 7) 세속적 인본주의로 구분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미국인이 이 다양한 세계관을 자신에게 맞게 섞어 만든 '맞춤형 세계관(customized worldview)'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영적 위기를 초래했다고 분석합니다.

한국도 이와 다르지 않은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2023년 청소년 가치관 연구에 따르면, 한국 청소년의 30%만이 결혼이 필수라고 생각하며, 81%가 결혼하지 않고도 남녀가 함께 살 수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또한 61%는 결혼 전에 아이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며, 52%는 동성 결혼에 찬성하는 것

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 속에서 교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우리는 문화선교사로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문화선교 사명 1 : '이야기를 회복하라'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 공동체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해하려면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지속해서 들려주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이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교회가 들려주고 있는 이야기는 무엇인지 진지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선교 이야기입니다. 성경 없는 선교는 불가능하며, 실천 없는 선교는 공허하고, 말씀 없는 선교는 방향을 잃기 쉽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는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자기만족적 선교에서 벗어나 건강한 선교를 지속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 파송 국가들이 오히려 더 세속적인 사회가 되고 있는 현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신구약을 꿰뚫는 하나님의 선교, 성경적 관점에서 바라보지 않는 선교는 허약하고 위험합니다.



따라서, 문화선교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이야기를 담아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창작자의 영성과 깊은 말씀 목상이 필수적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가 아름다운 예술로, 그리고 많은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문화로 표현되기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문화선교 사명 2: '하나님이 나를 지금 여기에 보내셨다'

우리 삶의 의미와 가치를 찾고자 하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나는 왜 여기에 있는가?' 인간은 의미와 가치를 추구하는 존재이기에, 이러한 질문은 매우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갈망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문화선교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확인하고, 그 사명을 재생산하는 것으로부터 힘을 얻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창세기 45:7) 고백합니다. '왜 내가 여기에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성경적 대답은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입니다. 이것이 우리 존재의 의미이자 선교의 정의입니다.

성경에는 사명을 받고 보내진 수많은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버림받은 줄 알았지만, 사실은 생명을

을 구하기 위해 보내진 인생이었습니다(창세기 45:7). 모세는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민족 구원을 위한 준비 과정이었습니다(출애굽기 3:10). 엘리야는 국제정치의 한가운데로 보내졌고(열왕기상 19:15~18), 예레미야는 심판을 앞둔 자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하도록 보냄을 받았습니다(예레미야 1:7).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으며(누가복음 4:16~19),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마태복음 10:5~8). 바울과 바나바는 선교와 구제를 위해 교회로부터 파송받았습니다(사도행전 11:30).

문화선교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의 보내심'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요한복음 20:21) 말씀하셨습니다. 이 보내시고 보냄을 받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 속에서, 즉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속에서, 우리는 선교의 근원과 힘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통해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이야기가 재현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이 시대의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세상에 들려줄 우리의 이야기와 노래, 그리고 목소리를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선교적 사명'은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와 질서를 회복하는 '창조의 사명', 그리고 앞으로 올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소망을 선포하는 '종말론적 사명'을 포함합니다. 또한 우리는 오늘날의 어려운 현실 속에서 이상승매와는 구별된 대조공동체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존재론적 사명'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이야기가 이 시대에 다시금 재현되기를 바랍니다. **만남**

영락이여, 복음 전하며 올라가라!

2024 영락 총동원 전도캠페인이 9월 22일(주일) 전도대상자 작성을 시작으로 11월 10일까지 8주간 이어집니다. 전도 캠페인 기간 중에는 전도 소그룹모임과 전도간증초청, 전도 특별금요기도회가 펼쳐지며 추수감사주일인 11월 17일은 전도 대상자와 함께 드리는 총동원 전도주일로 드러질 예정입니다.



이번엔 새롭게 살펴볼 것들

전도기도북

성도들이 전도자로 영적으로 준비되도록 돕는 안내서입니다. 30일 동안 전도 관련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 자연스럽게 전도자로 무장될 수 있습니다. 전도기도북은 9/22(주일) 전도 부스에서 작성서를 제출한 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도 소그룹

전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며 격려하는 영적 공동체입니다. 가족전도, 지인전도 등 전도 대상자별로 모여 효과적인 전도 방법을 공유하고, 서로 중보 기도합니다. 이를 통해 전도가 혼자 하는 일이 아니라 함께하는 사명임을 깨닫게 됩니다. 전도소그룹은 9/22(주일) 작성서 제출 시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63회 어린이교육대회 글짓기 부문 - 유년부 금상>

아래의 글은 유년부 최아영 어린이가 지난 5월 서울노회가 주최한 제63회 어린이교육대회에서 금상을 차지한 작품입니다. 최아영 어린이는 서울시어린이종합축제 금상(“나는 예수님이 좋아요”), 교회학교 아동부전국연합회 대상(“치유하시는 하나님”)을 잇따라 수상하며 귀한 달란트를 발휘했습니다.



최아영_유년부 2학년 5반

나의 기도

하나님, 저는 커서 작가가 되고 싶어요. 저는 사람들이 제 책을 읽을 때 슬프면 위로가 되고, 마음이 힘들면 마음이 편해지고, 몰랐던 것을 알게 되고, 기쁘면 더 기뻐지고, 재미있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용기가 생기는 책을 쓰고 싶지만, 무엇보다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요. 그리고 할아버지는 아직 예수님을 믿으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제가 쓴 책으로 할아버지도 예수님을 알게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할아버지도 같이 교회에 다니고 싶어요.

저는 나중에 책을 써서 냈는데 인기가 별로 없어서 괜찮아요. 그냥 읽는 사람들이 도움만 되면 돼요. 저는 좋은 작가가 되기 위해 날마다 집에서 책을 써요. 하지만 제가 싫어했으면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책을 쓰는 것이 저에게는 재미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왜냐하면, 작가가 되기 위해 한 발 더 다가가기 위해 제63회 어린이 대회에 나가는 날이거든요. 하지만 쓰기가 너무 힘들어요. 자꾸만 눈물이 나오거든요. 집에서 쓸 때는 마음이 편했는데 다른 곳에서 글을 쓰니까 마음이 많이 무거워요. 엄마는 “참가한 것이 대단한 거야. 이름만 써도 돼. 괜찮아”라고 하며 응원해주셨어요. 하지만 계속 눈물이 나오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제 마음을 침착하게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라파 하나님과 함께한 특별한 날

드디어 여름성경학교에 가는 날이 되었습니다. 저는 11지파, 갈릴리 땅에 속하게 되었어요. 우리는 1시간 30분 정도를 달려 파주 영산수련원에 도착했습니다.

'SOS 하나님 고쳐주세요!'라는 주제로 예배를 드렸고, '마라의 쓴물' 성경공부를 하며 쓴물을 단물로 고쳐주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 '도와줘요! 라파맨' 활동에서는 신지원 전도사님이 함께해주셔서 우리 지파가 1등이 되어 더욱 재밌고 신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는 '보고, 다가와 고치시는 예수'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전도사님께서 돌아가신 할머니 얘기를 해주셨는데, 친구들이 많이 울었습니다. 저도 눈물이 조금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 좋았습니다.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 친구들과 놀다가 제가 실수로 콘센트를 발로 쳐서 커버가 벗겨지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콘센트를 만지다가 살짝 '찌릿'한 느낌을 받았어요. 너무 놀라고 무서웠지만, 선생님과 친구들이 저를 위해 기도해주어서 마음이 편안해지며 폭 잘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는지, 전날 기도했던 손가락은 말끔해졌습니다. 이 일을 통해 저는 라파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저를 위해 기도해주시는 선생님과 친구들을 위해 저도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여름성경학교가 초등부로는 마지막으로 참여하는 성경학교라는 사실이 쉽기도 했습니다. 힘들고 더웠지만, 우리를 치유하시고 항상 곁에 계시는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어 너무 좋았습니다. 이렇게 재미있는 여름성경학교를 준비해주신 전도사님과 선생님들께 감사했습니다. **만남**

선생님과 함께 기도하는 다연이



김다연 _ 초등2부 4학년

여름성경학교에서 배운 소중한 것들, 기도, 치유, 말씀, 그리고 친구들

이번 여름성경학교에서 느낀 점이 많습니다. 우선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방법을 알게 되어, 이제는 하나님께 기도를 더 잘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 “하나님, 하나님”이라고 외치며 하나님을 찾는 모습을 보니, 하나님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남을 위해 기도하는 방법도 배웠습니다. 선생님,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니 뿌듯했습니다.

다음으로 성경학교를 통해 저는 라파 하나님에 관해 좀 더 알게 되었습니다. 라파 하나님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께 돌이켜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라파하나님 되소서”라는 찬양 가사는 제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저를 도와주시는 느낌이 들어 든든합니다. 앞으로도 모세와 베드로처럼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길 기도합니다.

성경 말씀을 암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잘 외워지지 않아 어려웠지만, 아침, 점심, 저녁으로 반복하니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규례를 지키며 살아가기를 기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맨 오른쪽 빨간줄무늬 티셔츠가 지유 →

옆에 안경 쓴 친구를 전도함!



김지유 _ 소년1부 6학년

마지막으로 이번 성경학교에서 선생님, 친구들과 더욱 친해지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같이 물놀이를 하고, 같은 방을 쓰고, 밥도 먹고, 레크리에이션을 하며 더욱 친밀한 관계가 되어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침 시간에 큐티를 함께 하며 성경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고, 공과 시간에도 친구들과 같이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여름성경학교가 너무 좋아 친구들이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친구에게 전도하여 우리 교회에 함께 다닐 수 있게 했고, 함께 여름성경학교에 가서 은혜받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소년부 친구들이 전도를 열심히 해서 더 많은 친구가 우리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알고 잘 믿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재미있는 성경학교를 보낼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준비해주신 목사님, 전도사님, 장로님, 선생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만남**

기대 없던 시작, 새롭게 다가온 수련회

수련회를 준비할 때 이전과 달리 기대감이 크지 않았고, 무더운 날씨에 캐리어를 끌고 경사진 언덕을 올라 수련원까지 가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친구들과 레크리에이션을 하고 조 활동을 하면서 점점 재밌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집회를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 이유를 조금씩 깨닫게 되었고, 양진철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께 받은 것들을 당연하게 여긴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기도 중에 저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힘들었고 전혀 괜찮지 않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가 잘못된 것을 회개하며 기도드렸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뜨거운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예배했을 때, 너무 은혜롭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신나는 물놀이, 센터 학습, 그리고 박길영 전도사님의 감미로운 노래와 진로에 관한 강의까지 들을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저녁집회에서는 목사님께서 옆에 있는 친구와 함



배세인 _ 중등부 2학년

께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더 집중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자신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는 저의 힘들음에 대해 기도드렸는데, 갑자기 “세이나 괜찮아”라는 따뜻한 위로의 음성이 들려왔고, 그 순간 제 두 눈에서는 눈물이 끊임없이 흘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수련회가 기다려지지 않았던 이유도 알게 되었습니다. 3학년 언니, 오빠들과 함께한 행복한 시간이 끝날 것을 생각하니 아쉬움이 컸고, 이처럼 제 마음의 우선순위가 하나님보다 여러가지 다른 것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임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내려놓고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하자 하나님께서 저에게 더욱 큰 기쁨을 주셨습니다. 기대하지 않았던 만큼 오히려 더 큰 은혜를 누린 귀한 수련회였습니다. 더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음 수련회도 기다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남**



수련회에서 다시 찾은 희망과 믿음



이제훈 _ 고등부 3학년

2024년의 절반을 지나며, 고3인 저는 과거의 후회와 대입 준비의 부담감,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이로 인해 어두운 생각에 빠졌고, 희망도 잃었습니다. 중요한 수련회가 다가왔지만, 당장 해야 할 일이 우선이라는 생각에 신청조차 망설였으나, 고등부 선생님의 격려로 수련회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수련회에서도 여전히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해야 할 일을 미루고 온 것 같아 후회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녁집회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며 잠시나마 고3이라는 부담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혼자라고만 생각했던 구역적인 마음에 한 줄기 빛이 들어왔고, 그 감동은 이어진 설교 시간까지 지속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고 의지하며, 세상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쓰임 받기를 원하신다는 김선교 선교사님의 말씀을 통해 저의 남은 고등학교 3학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매주 교회에 나가긴 했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은 채 제 힘으로만 모든 것을 해결하려 발버둥 쳤고, 하나님께서 언제나 제 손을 잡고 계신다는 것을 애써 외면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저녁 집회를 통해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비밀들과 아픈 기억들,

그리고 부끄러워 잊고 싶었던 죄들을 모두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세상과 다름없는 모습을 회개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다시금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나 저의 손을 잡고 놓지 않으시고 언제나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찬양의 가사가 이제야 진정으로 마음에 들어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번 수련회 주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실 때, 그물을 버려두고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수련회는 흔들렸던 신앙과 믿음을 바로 세운 뜻 깊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겠다고 결단했습니다. **만남**





우리 아이는 일주일 내내
즐거워요! 어와나만 기다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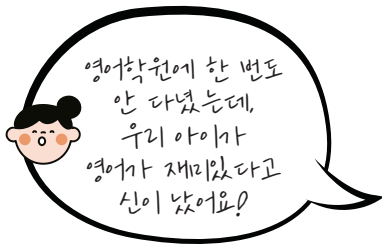
영어로 하는
영락 어와나

Awana!



매주 어와나에서
땀 흘리며 뛰놀 때도 신난
아이들 볼 때마다 어와나
아주 잘했다고 싶어요





지난 3월부터 영락교회에서 시작된 영어 어와나(Awana)* 프로그램에 참여한 부모들 사이에서 회자했던 말들이다. 첫 학기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이들 48명의 높은 출석률과 적극적인 참여로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다. 사실 기대 반, 걱정 반으로 시작한 영어 어와나를 진행하면서 '아이들이 영어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을 잘 따라갈 수 있을까?' 걱정도 했지만, 몇 주가 지나면서 불필요한 염려였음이 드러났다.

아이들은 매주 금요일마다 '청군 이겨라! 백군 이겨라!'와 같은 응원전을 펼치며 팀별 게임에 몰입했으며, 소그룹으로 나누어 진행된 영어 성경 암송 시간에도 열정적으로 참여하여,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성경 구절을 암송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소그룹 활동 시간이 부족할 정도여서, 그다음으로 이어지는 찬양모임에 늦게 합류하는 일도 일어났다. 아이들은 영어 찬양과 율동을 배우며 하나님을 찬양했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결단하는 모습도 보였다.

창의성과 열정으로 가득했던 첫 학기

학기 중간에 진행된 '핫도그 콘테스트'는 큰 인기를 끌었다. 아이들과 부모가 함께 집에서 준비해 온 토핑으로 창의적으로 핫도그를 꾸미는 대회였는데, '갈릴리 호수' '강아지 핫도그' '오아시스' '놀이동산' '하와이안 섬' '김밥핫도그' '프렌치 프라이 요새' 등 그야말로 다양한 창의성을 발휘했다.

학기 말에는 영어 성경암송대회와 찬양대회가 열렸다. 아이들은 한 학기 동안 외운 성경 구절과 찬양을 발표했으며,

이를 지켜본 리더 선생님들은 가슴 벅차도록 크게 감동했다. 아이들이 너무나 진지하고 열정적으로 임하는 모습을 보며, 그들의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앞날을 인도해주시리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 학기는 각자 받은 달란트로 달란트 시장에서 물품을 교환하며 즐겁게 마무리되었다.

부모들의 긍정적인 반응과 신앙의 결속

학기가 끝나면서 진행한 부모 설문조사에서 가장 감동적이었던 부분은 아이들이 어와나에 참여하는 동안 자신들은 금요기도회를 참석하게 되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다고 전한 것이었다. 아이들은 어와나를 통해, 부모는 금요기도회를 통해 가족이 신앙으로 하나 되어 화목해졌다는 사실만으로도 영락 어와나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임을 확신하게 해주었다.

영락교회 어와나는 국제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자녀가 시공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신앙으로 더욱 무장하여 세계를 품고 선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명을 이어나가야 할 것이다. 이 모든 일에 인도해주시고 도와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함께 수고해주신 국제예배 임원단과 어와나 리더 교사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만남**

* '어와나'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인정된 일꾼'이라는 뜻으로, 영어성경 디모데후서 2장 15절(Approved Workmen Are Not Ashamed)에서 첫 글자를 따온 이름이다.

35년의 기도와 함께하는 신앙 공동체

올해로 35년째 이어져 온 베드로부 기도회를 소개합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의 진로는 다양합니다. 어떤 벗님들은 바로 직업을 찾아 일을 시작하거나, 대학에 진학하여 대학 생활을 시작하거나, 일찌감치 군대에 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입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해 재도전하는 벗님들도 있습니다. 베드로부는 이렇게 다시 도전하는 벗님들이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돕는 공동체입니다.

함께하는 기도의 힘

다시 도전하는 과정은 혼자서는 매우 힘겹습니다. 어떤 날은 외로움과 공허함을 느끼기도 하고, 결과에 대한 압박으로 스스로 자책하며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같이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서 나는 혼자가 아니며,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여정의 일부라는 것을 아는 믿음입니다. 베드로부 기도회는 선생님들, 선배들, 그리고 다른 벗님들과 함께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믿음을 더욱 단단하게 하며, 힘든 순간에 서로를 위로하고 힘이 되어주며 다가오는 하루하루를 긍정적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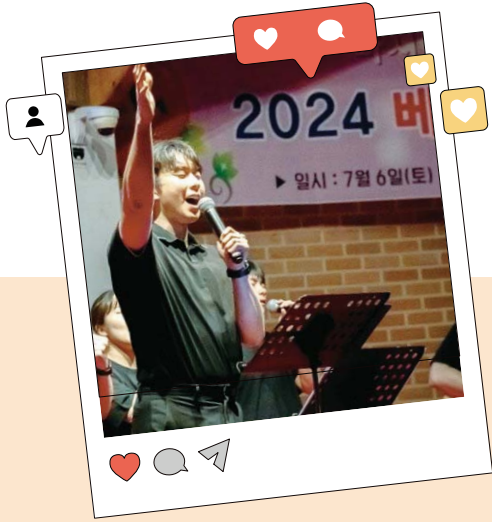


이서연 벗님
베드로부 학생회장

기도회에서 얻는 위로와 희망

베드로부는 공부와 입시에 지친 벗님들을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격려하며 힘을 북돋아 줍니다. 우선, 매주 열리는 기도회는 벗님이었던 저에게 일주일 중 가장 큰 행복으로 다가왔습니다. 로벤찬양대의 찬양을 들으며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고, 김진재 전도사님의 설교를 들으며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께 위로받았습니다. 기도회 후에는 조별 모임을 통해 선생님, 선배,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나누며 큰 위로를 얻었습니다.

봄이 되면 야외 활동도 진행합니다. 다시 시작하는 공부에 답답해 할 즈음, 학원이나 독서실을 벗어나 좋은 날씨를 만끽하며 마음을 새롭게 다질 수 있는 소풍을 갑니다. 작년에는 저희 조원들과 로벤찬양대가 함께 청계천을 걸으며 맛있는 음식을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날이 무척 즐거워서 돌아오는 주간에 더욱 힘내서 열심히 공부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올해도 새로운 벗님들과 함께 야외 활동을 나가 기차길 옆에서 분식을 먹고 서울로를 산책한 후, 노들 한강 공원에서 즐겁게 지냈습니다.



여름에는 수련회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작년 여름에 영락기
도원에서 진행된 수련회는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지리적으
로 가까운 곳이라서 공부하는 학생들도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어, 시원한 물놀이와 함께 즐겁게 보냈습니다. 제게 '여름'
하면 떠오르는 기억 중 하나입니다. 올해도 영락수련원에서
'다시 일어나' 주제로 여름 수련회를 진행했습니다. 비가 온

다는 일기예보와는 달리 맑고 시원한 날씨 속에서 계획대로
수련회를 진행할 수 있었고, 물놀이와 함께 더위와 스트레스
를 날려버렸습니다. 저녁 집회에서는 장신대 신형섭 교수님
의 설교 말씀을 듣고 찬양했습니다.

수능이 다가오면 베드로부는 더욱 집중적으로 벗님들을
위해 기도하며, 수능 당일에는 선생님들과 선배들이 아침부
터 모여 그동안 노력한 벗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벗님을 위한 열린 공동체의 초대

이 힘든 시기를 혼자 보내기보다는, 서로 격려하고 힘이 되는
공동체인 베드로부에서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만나는 기회
를 더욱 확장하는 것은 어떨까요? 베드로부는 언제나 새로운
벗님을 환영합니다. 입시를 다시 준비하거나, 시험을 앞두고
있거나, 혹은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싶은 벗님은 모두 주일 오
전 10시에 50주년기념관 503호에 오셔서 함께 기도하고 교
제했으면 좋겠습니다! **만남**



뻘뻘한 사랑

간증의 자리에 선다는 것은 감사하고 은혜로운 일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적잖이 부담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저의 신앙 경험이 전혀 공감도 얻지 못하고, 어떠한 울림도 남기지 못한 채 그저 공허한 외침으로 사라질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신앙에 관해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저의 부끄러운 모습을 감추고, 오히려 그럴싸한 모습을 부풀려 제 신앙을 대단한 것으로 보이고 싶은 유혹을 이겨내는 어려움을 재차 실감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그동안 시간 부족이나 낮부끄러움을 이유로 전하지 못했던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용기를 내게 되었습니다.

제 현재의 신앙 상태에 대하여

저는 지식과 경험이 적절하게 배합된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비율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어느 한 쪽이 부재하거나 혹은 지나치게 치우친다면, 그 신앙은 건강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경우 오랫동안 지식에 치중된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확실한 것, 아는 것, 설명할 수 있는 것을 선호하고, 동시에 확실하지 않은 것, 설명하기 어려운 것을 피하는 성향이 제 신앙관을 형성하게 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동안 대면 예배가 축소되거나 제한되면서, 저의 개인적인 신앙관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각 개인의 공간에서 신앙생활을 이어가야 했던 이 시기는 크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교회에서 낯선 이들과 부담스러운 신앙

김일현 님
대학부 46기
에스터마을



과 삶을 나누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약간은 기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팬데믹이 끝난 후에도 한동안 온라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예배 방식이 익숙했고, 편리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혼자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언제부턴가 다른 신앙의 지체들을 바라보는 제 시선과 마음이 사랑보다는 미움에, 관용보다는 정죄에 더 가까워져 있다는 사실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신앙의 왜곡과 공동체로의 회귀

이러한 왜곡된 신앙은 결국 제가 다시 교회로 돌아가게 만들었습니다. 혼자만의 신앙생활이 제 신앙을 불건전하게 만들었다는 깨달음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교회에 돌아온 후에도 기존의 신앙적 습관과 그로 인한 문제들이 한순간에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교회 내에서 다른 사람들과 접촉할 때 정죄의 대상이 더 분명해지고, 그 정죄의 근거는 구체적으로 형성되어 오히려 전보다 더 마음을 불편하게 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의 갈등과 기도

'교회 내에서 역할을 맡고, 다른 지체들과 교류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정죄의 마음도 덜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마을 리더십과 수련회 조장을 지원해서 역할을 수행해 보았습



니다. 그러나 결국 남게 된 것은 '나와 그들은 다르다'라는 교만하고 외로운 결론이었습니다.

저는 이 교만을 꺾어 달라고,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덮고 사랑할 수 있는 관용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이 기도는 응답 없이 반복되었고, 제 신앙은 또 다른 종교적인 행태로 전락해버린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은 밤

이번 여름 수련회 첫날 새벽, 습관적으로 기도실로 향했습니다. 좀처럼 기도실 문이 열리지 않아 자세히 보니, 누군가가 벗어던진 신발이 문틈에 끼여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신발 정리도 제대로 못하면서 무슨 기도나라는 생각에 분노가 차올랐습니다. 그러나 곧 그런 생각을 하는 제 모습이 부끄럽고 화도 났습니다.

부끄러움과 분노를 소화할 생각에 힘껏 기도실 문을 당기는 순간, 문에 걸린 신발이 튕겨져 나가면서 버티고 있던 제 왼쪽 발과 문이 쿵 하고 부딪혔습니다. "억!" 하는 소리와 함께 왼쪽 발을 보니 이미 양말이 피로 진하게 젖어있었고, 결국 응급실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자정을 넘긴 시간에 저 때문에 네 명의 사람들이 불편을 겪게 되었습니다. 응급실에서 치료를 마치고 다시 숙소로 향하는 동안 깜깜한 새벽길을 달리는 차 안은 고요했습니다. 적잖이 피곤했던지 제 옆에 앉아 꾸벅꾸벅 졸다가 화들짝 놀라기를 반복하던 부리더 동생은 저와 눈이 마주치면 미소 지으

며 "괜찮으세요, 형?" 물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이 달라져 있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미안하고, 죄스럽고, 부주의했던 저 스스로가 한심했던 마음이, 저를 위해 늦은 시간 함께하며 걱정해 주는 이들을 향한 감사의 마음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동시에 이들이 보여준 관심과 걱정이, 제가 평소 느끼던 '해야만 한다'는 강박적 사랑의 행위들보다 훨씬 자연스럽게 아름답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뻥뻥한 사랑'의 의미

함께 새벽길을 달리던 이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적절히 전달했는지 명확하게 기억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희미한 기억에 오히려 감사합니다. 강박적으로 누군가의 행동을 기억하고 그에 대해 적절하게 반응하는 평소의 저의 모습을 내려놓았음을 증명하는 중요한 단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온전히 누리는 것은 어쩌면 제가 그토록 미워하고 멀리했던 '뻥뻥한' 모습과 닮아있는 것은 아닐까요? 동시에 사랑을 전하기 위해선 보답을 기대하기보다 상대가 그 사랑을 '뻥뻥하게' 누리기만을 바라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염치없이 사랑의 유익을 누리는 즐거움이 이런 것이었구나'라는 기분 좋은 경험과 함께 다시금 창문에 머리를 기대고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서 정말 오랜만에 막연하고, 기분 좋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럼 나는 그 뻥뻥한 사랑을 누구에게 흘려보내야 하나?' **만남**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선교



방동욱 님
대학부 45기
모세마을

회의감을 품고 시작된 선교의 길

저는 교회에 회의를 느끼며 공동체에 소속되지 않고, 말씀만 듣고 도망치듯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친구와의 통화 중에 선교에 함께 가자는 친구의 제안을 듣고 대학부 캠퍼스에서 선교를 신청했습니다. 새벽 아르바이트를 하며 선교 준비를 할 때 '내가 왜 선교에 신청했을까?'라는 생각이 자주 들었습니다. 소심한 성격의 저는 친한 친구가 별로 없어도 '어차피 다른 교회로 갈 사람이니까 친해지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쿨한 척하며 가벼운 마음으로 선교에 임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도움이 되기 위해 물품팀장을 맡았고, 무언극, 워십, 교육 등 다양한 역할도 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계획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서 부족한 마음으로 준비를 이어갔습니다.

선교지에서의 깨달음

선교를 일주일 앞두고 물품을 패키징하는데, 예상치 못한 추가 물품이 생기고 선교사님의 개인 짐까지 들어오면서 상황이 복잡해졌습니다. 갑자기 서러움이 밀려오며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기도 제목이 생겼는데, 첫째는 '나도 나누며 즐길 수 있는 사역을 하고 싶다', 둘째는 '초심으로 돌아가고 싶다', 셋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자'였습니다.

선교지 센터에 도착해 공연을 시작했을 때, 연습이 부족했기

에 큰 기대를 하지 않았던 무언극에 대한 반응이 가장 좋았습니다. 운이 좋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셋째 날, 팀원들과 함께 찬양 교육을 진행하면서, 부족했던 준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반응이 좋은 걸 보고 세 번째 기도 제목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내가 순종했음을 깨달으며, 감동에 오열했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함과 나아가길 힘

기도 제목들이 하나씩 생각났습니다. 잊고 있던 '대가 없는 사랑을 주자'라는 초심도 생각나며, 선교 준비 과정부터 선교 내내 사랑을 나누고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남을 의지하지 않았던 제가 동생들을 의지하고, 나아가 하나님을 크게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선교 활동 중에 팀원들과 센터 친구들에게 큰 사랑을 받으며,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누구도 믿지 않고 혼자 모든 것을 하려고 했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쳤습니다. 이제는 저의 한계를 느끼고, 하나님의 무한함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두려움 없이 나아가길 수 있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저를 일으켜 세워주실 하나님의 의지하고 믿으며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만남**

낮선 땅 캄보디아에서 주님의 사랑을 다시 만나다!



명금찬 벗님
대학부 49기
에스더마을

캄보디아 선교를 떠나는 날의 저는 주님의 사명을 전하기보다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연습한 것을 보여주고, 처음으로 캄보디아에 간다는 기대와 두근거림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선교 둘째 날, 저의 안일한 생각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난생처음 마주하는 열악한 환경과 그 속에서도 꽃처럼 활짝 웃는 아이들의 순수한 웃음이 저를 깊이 감동하게 했습니다.

아이들과의 교감을 통해 회복된 믿음

포이펏에는 이미 수많은 선교팀이 다녀갔고, 앞으로도 많이 올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는 잠시 왔다 가는 사람일 뿐이니, 이곳 사람들에게는 큰 의미가 없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생각은 아이들과 함께 보내며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이들은 매번 찾아오는 선교팀 중 하나일 뿐인 우리를 티 없이 맑은 웃음으로 매일 맞아주었고, 우리가 주는 사랑에 한없이 행복해하며 더 많은 사랑을 갈구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잃어버린 줄 알았던 주님과 관계를 다시 느꼈고, 무엇보다 지난날 주님의 길을 따르지 않았던 저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나눔사역에서 깨달은 진정한 사랑

캄보디아 이기원 선교사님과 함께 빈민촌 곳곳에서 빵을 나눠주는 나눔 사역을 나갔을 때, 선교사님은 "이 빵을 가난한 자에게 베푸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순간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깨달았고, 지금도 그 따뜻한 기억을 되새기며 주님을 만납니다.

떠나는 순간에 다가온 새로운 확신

비록 일주일도 안 되는 짧은 사역이었지만, 제 마음에는 형언할 수 없는, 주님께서만 아시는 그 무언가가 자라났습니다. 준비한 물품 등 많은 것을 두고 와 짐은 가벼워졌지만, 귀국 길의 마음은 어느 순간보다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선교 마지막 날, 고작 3일을 함께했던 저희를 바라보며 아이들이 흘린 뜨거운 눈물과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겨우겨우 옮겼던 아포스톨로스 사역팀의 땀방울은 제게 또 다른 확신과 새로운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사랑을 나누는 대학부 공동체가 되기를, 나아가 모든 지구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전히 저의 삶에서 많은 어려움과 부족함을 마주할 테지만, 이번 경험을 통해 두렵지 않고 당당하게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정한 행복을 마주했으니, 이제 그 사랑과 행복을 나눌 차례라고 생각합니다. 낮은 자세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을 섬기며 살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곤 브레야 예수!(주 예수께 감사 올립니다) **만남**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 2박 3일, 모든 것이 은혜였던 대학부 농활

6월 26일부터 28일까지 2박 3일간 전북 남원으로 농촌봉사 활동을 다녀왔습니다. 박소명 목사님이 사역하시는 입암성 은교회에 도착해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도울 일들에 대한 안내를 받은 후 본격적으로 일손 돕기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함께하는 농활의 기쁨

백향과(패션후르츠) 따기, 벽화 그리기, 파이프 옮기기, 모종 심기 등 여러 조로 나뉘어 마을 어르신들을 도왔습니다. 처음에는 농사일이 서투르고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요령도 생기고 점점 즐겁게 일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함께 일하면서 서로 응원하고 격려한 덕분에 지치지 않고 웃으며 일할 수 있었습니다. 작년에 참여한 농활에서는 체력적으로 무척 힘들었고, 벗님들과 충분히 교제할 시간이 부족해 아쉬움이 있었는데, 이번엔 일하면서 벗님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알아가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 더욱 좋았습니다. 첫째 날 낮에는 일손을 돕고, 저녁에는 남원의 명소인 광한루원에 가서 벗님들과 교제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함께 걸으며, 원래 알던 벗님들과는 더욱 가까워지고, 처음 만난 벗님들과는 새로운 우정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별을 보며 느낀 하나님의 위대함과 공동체 사랑

둘째 날 저녁과 새벽에 다 함께 별을 보러 갔을 때가 기억에 남습니다. 우리는 매트 깔고 한참 동안 하늘의 별을 바라봤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전유안 벗님
대학부 51기
에스더마을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시편 8:3-4) 이 말씀처럼, 우리는 작은 일에도 쉽게 불만을 느끼는 연약한 존재인데, 우리가 뭐라고 이렇게 무수히 많은 별과 달을 보여주시는지. 금방이라도 쏟아질듯 한 별을 보는 내내 감사함으로 가득했습니다. 몇몇 벗님들은 아예 매트와 이불을 가져와 누워서 편안하게 별을 보며 그동안의 농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 모습 그 자체가 은혜였습니다. 함께 웃으며 얘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번 농활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얼마나 많은 사랑을 주셨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아침, 점심, 저녁으로 맛있는 밥을 준비해주신 손길들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더운 날씨에도 묵묵히 식사를 준비해주셨고, 맛있게 먹는 모습만 봐도 좋다는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더운 날씨에 속에서도 서로 배려하고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벗님들의 모습에서 '아! 이런 모습이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공동체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번 농활을 돌아보니 어느 하나 감사하지 않은 것이 없었던 은혜 가득한 시간이었습니다. 2박 3일 동안 좋은 날씨와 행복한 추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만남**



대학부찬양대 SMC 제37회 찬양음악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SMC(Sanctus Missionary Choir)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대사'로서 이 땅에서 주님의 뜻을 전하고자 하는 소망을 담은 이름입니다. 1976년에 노래 선교단으로 창단된 SMC는 1981년부터 대학부찬양대로 활동하며 찬양과 연주로 예배를 섬기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20대의 젊은이들로 구성된 SMC는 매주 대학부 예배에서 찬양으로 섬길 뿐 아니라, 찬양음악회, 겨울음악학교, 강화훈련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 신앙과 음악의 성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SMC의 이름에 걸맞게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젊은 대사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는 찬양음악회를 잠시 멈출 수밖에 없었지만, 찬양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매주 소수 인원이 모여 예배 사역을 계속 이어온 결과 작년 12월에는 성탄 칸타타「찬양의 계절」을 통해 함께 찬양하는 기쁨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이제 SMC는 주님께서 보여주실 새로운 찬양의 계절을 기대하며 많은 사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37회 찬양음악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찬양의 자리를 다시 허락해 주심에 감사하며 드리는 자리입니다. SMC를 창단할 때부터 지금까지 이끌어 주시고, 어려운 시기에도 십자가 그늘에서 쉬게 해 주시며, 목자 되신 주님을 의지하고 따라갈 때 넘치도록 은혜를 부어주신 주님을 찬양하고자 합니다. SMC가 전하는 찬양의 기쁨을 많은 영락의 성도님과 함께 나누고자 이 자리에 초대합니다. 오셔서 오늘을 살아가는 20대 청년들이 고백하는 하나님에 대한 깊은 사랑과 헌신을 담백 느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남**



일시 및 장소 : 2024년 9월 28일 (토) 저녁 6시, 선교관



흰색의 은혜, 벽화 작업에서 배우는 생명과 섬김의 의미

과거에도 벽화 작업을 해본 적이 있지만, 그때는 언니 오빠들이 잘 준비한 자리에서 주어진 부분만 맡아서 했습니다. 이번 거진중앙교회 하기선교에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주제로 제가 직접 디자인을 맡아 섬기게 되었습니다. 총 18명의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작업이었는데, 각자의 직업과 역량이 다르다 보니, 어떻게 하면 모두가 더 쉽게 색칠할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또한 지교회의 목사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디자인을 목사님께 먼저 보여드리고 수정하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친하지 않아 조용한 분위기였지만, 디자인

샘플이 하나씩 나오면서 팀 분위기가 활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모르는 부분은 다른 팀원이 채워주었고, 조용하던 사람들도 아이디어를 내며 흥미롭게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벽화팀의 예산이 여유롭지 않았지만, 곳곳에서 기쁜 마음으로 섬겨주신 덕분에 감사하게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잊고 있던 비전의 회복

어릴 때부터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했던 저는 '제가 그린 그림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자주 했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면서 바쁜 일상에 치여 제 비전을 잊고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청년부의 뜨거운 에너지를 느끼는 요즘, 제 안에 있던 기도와 비전들이 꿈틀거렸는지 이번엔 직접 시간을 내어서 하기선교에 참여하기로 했고, 이왕이면 제 달란트를 살릴 수 있는 벽화팀에 참여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협력하다 보면 주님께서 제 마음을 더 겸손하게 만드십니다. 교회 밖 세상에서 작업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욕심이나 야망 같은 세속적인 것들에 물들고 맙니다. 하



경소연 성도
청년부 주는나무

지만 이번 벽화 작업을 통해, 제가 이 자리에 있음은 오로지 주님의 은혜임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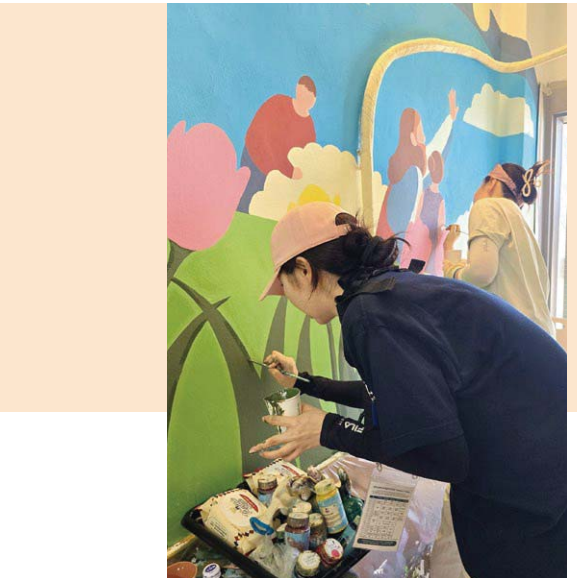
생명을 살리는 흰색의 역할 : 소금과 빛의 비유를 되새기며

마태복음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라는 말씀이 생각납니다. 아무리 많은 달란트를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필요한 곳에 사용하지 않으면 빛과 맛을 잃게 됩니다. 달란트의 쓰임새에 따라 한 생명을 구하느냐 마느냐가 달린 것 같습니다.

이번 벽화 작업에서는 원하는 컬러를 다 구매할 수가 없어서 워크숍 시간에 색을 섞는 시간을 가졌는데, 물감의 특징상 모든 색은 흰색을 바탕으로 시작하더라고요. 오랜만에 물감을 만져보는 분들이 강한 색들을 섞다가 색이 탁해져도 흰색을 넣어주면 원래의 밝은색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흰색이 우리를 다시 원점으로 돌려놓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기선교 워크숍 기간 중 주일 설교에서 기독교가 생명을 구하는 일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설교 중 “우리가 사는 세상을 색깔로 표현해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요?”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딱 워크숍 시간이 떠오르더라고요. 세상은 다양한 색이 주장하는 알록달록한 세상일 수 있지만, 우리는 그 밑에 스며든 흰색과 같은 역할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소금이 짠맛을 내듯, 우리도 한 영혼이 아름다운 색을 빛낼 수 있도록 돕는 흰색과 같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그보다 더 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 저희도 조색할 때 실수할까 봐 흰색 페인트를 넉넉히 준비했네요.

하기선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팀원들이 즐겁게 색칠 공부하듯이 서로 섬기며 일하기를 기도했습니다. 오랜만에 하는 놀이처럼 하기선교 현장이 즐거우면서도 은혜로운 시간이 되길 바랐고, 선교 기간 내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기선교의 시작과 끝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졌던 것처럼, 우리 벽화를 통해 그 지역의 이웃들이 주님께 인도되는 기적이 일어나길 기도합니다. **만남**



온 가족이 함께 섬긴 이웃사랑

6월 27일부터 29일까지 2박 3일간 충남 보령시 천북면 소재의 신덕교회로 16교구(고양·파주) 3040 농촌봉사 하기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영락교회에서 3040세대가 주체가 되어 진행한 첫 하기선교 사역이었습니다. 6월 초 처음 참석한 지회 모임에서 6월 하기 선교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16교구 탁현수 목사님께서 하기선교 사역으로 청년들과 자주 가셨던 신덕교회에 처음으로 3040세대들과 가족 단위로 함께 가보려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청년 시절, 동네의 작은 교회에 다녔던 저는 2018년도에 남편과 결혼하며 영락교회로 왔기 때문에 하기선교를 경험한 적이 없었습니다. 모교회를 떠나 교회에 아는 사람도 별로 없고, 6살 첫째 딸아이와 18개월 둘째 아들을 양육하며 육체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많이 지치고 침체하여 있던 제 마음에 남편, 아이들과 함께 꼭 가보고 싶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저희 부부에게도 아이들에게도 큰 영적 자양분이 될 기회일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조예슬 성도
고양·파주교구

굿(Good)을 내려놓으니

베스트(Best)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당시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면접을 보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하선은 목·금·토, 아르바이트는 월·수·금 일정이라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면 하선 참여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지회 집사님들께서 우스갯소리로 아르바이트 면접에 떨어지길 기도해야 하나 하셨을 때는, 웬일인지 아르바이트를 하지 못해도 좋으니 꼭 가고 싶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하나님,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저 이번 하선 정말 진짜 꼭! 가고 싶습니다. 제 상황과 마음 다 아시죠~ 제가 가길 원하신다면 길 좀 열어주세요~'라고 어린아이와 같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방법으로 응답해주셨습니다. 아르바이트 가게 사장님으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근무 요일을 월·화·수로 바꿔서 고용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아르바이트도 하고 하선도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상황을 열어 주시는 하나님께 그저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굿(Good)을 내려놓기로 마음먹으니, 베스트(Best)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의 하선에 참여하길 원하신다는 확신도 들었습니다. 하선 준비모임 분들의 중보기도로, 단혀 있던 남편의 마음 문도 열려 금요일 하루 휴가를 내기로 결단해 주었습니다. 모두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신 성령님께서 남편의 마음 가운데 임하시고 일하셨음을 믿기에 참 감사했습니다.



아이들도 함께 섬기는 3040 하선, 믿음의 대 잇는 씨앗

이번 하선팀은 어른 24명, 아이 12명, 총 34명이 함께했습니다. 탁현수 목사님을 필두로 광영진 전도사님, 전재량 목사님, 김희원 사모님, 윤경선 권사님, 홍미영 권사님, 배현옥 권사님께서 각 가정을 섬겨주셨습니다. 팀 리더로 섬겨주신 김차진 집사님, 총무로 섬겨주신 이윤희 집사님, 헬퍼로 섬겨준 귀한 청년들 정은, 채은, 은혜, 그리고 함께한 모든 팀원분, 기도로 물질로 후원하여 주신 많은 분께 이 지면을 빌려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하선 일정을 위해 매일 1시에 1분씩 45일간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며 준비했는데,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올려드린 기도에 모두 응답해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무더운 여름날 함께 땀 흘리며 감자를 캐고 콩을 따며,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 섬기는 모습이 참 은혜롭고 감동되었습니다. 저는 아직 아이가 어려 보육 담당

으로 농사일을 돕지 못해 죄송했지만, 다음을 기약하게 되니 그 또한 감사했습니다. 가기 전에는 아이들을 데리고 잘 다녀올 수 있을까 걱정했지만 역시나 기우였고, 초등학교 고학년 형님들은 감자도 잘 나르고 어른 몫을 톡톡히 해주었습니다. 다녀와서 보니 아이들도 함께 가서 섬길 수 있다는 것이 3040 하선만의 특징적인 것 같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작은 섬김을 통해 믿음의 대가 이어지고, 아이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씨앗이 잘 심겼을 것임을 믿습니다.

내 신앙의 전성기는 아직 오지않았다는 도전

이번 하선 기간에 서로서로 격려하고 네 것 내 것 구분 없이 통용하며, 누구보다 내가 먼저 섬기는 모두의 모습을 보며 공동체의 소중함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고,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더욱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또 3040 하선을 통해 열심과 열정이 넘치던 청년의 때가 많이 생각났습니다. 결혼하고 아이들을 양육하며 바쁜 상황들로 인해 이제 예전처럼 섬길 수 없다고 합리화하며 봉사하기를 주저했던 모습들이 떠올라 부끄러웠습니다. 교구 목사님께서 내 신앙의 전성기는 지나간 것이 아니라 아직 오지 않았다고 하셨던 말씀을 전해 듣고 큰 도전이 됐었는데, 하선을 다녀와서 앞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더 열심을 내어야겠다고 마음먹게 되었습니다.

16교구의 첫 3040 농촌 하선을 시작으로 앞으로 3040 세대들이 은혜와 섬김의 자리에 함께 참여할 기회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부모와 자녀, 온 가족이 함께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영락 패밀리가 많아지길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만남**

쓰담쓰담 주일 소그룹 신앙의 여정을 함께 쓰담쓰담하며



주일 소그룹 모임은 3~6명의 교인이 한 조가 되어 설교 말씀을 되새기고, 삶에 적용하며, 기도 제목을 나누는 귀중한 시간입니다. 매주 주일 설교를 바탕으로 제공되는 교안을 통해 질문을 나누고, 지난 한 주간의 삶과 말씀을 연결하여 신앙의 경험을 나눕니다. 설교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이해하고, 각자의 삶에 적용할 실천목표를 작성합니다. 성경 공부가 말씀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수동적으로 배우는 것이라면, 소그룹 나눔은 말씀을 통해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누고, 그 은혜를 삶에서 어떻게 적용할지 능동적으로 고민하며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처음 모임에 참석할 때는 낯선 분위기 속에서 조심스러운 면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각자가 소그룹에 오게 된 이유와 신앙의 여정을 나누게 되었고, 대화의 초점이 자연스럽게 우리 자신에서 하나님

께로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서로의 신앙 이야기를 통해 점차 마음이 하나로 모였고, 울고 웃으며 함께하는 공동체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조원들의 소감 나눔

한 학기를 마무리하며 조원분들이 나누어주신 소감을 전해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교인이 많아서 부서나 구역, 봉사 등 다양한 사역을 통해서야 비로소 서로를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맡은 일에 쫓기다 보면 말씀을 같이 나누고 서로 격려하는 교제의 시간을 갖기는 쉽지 않습니다. 또한 예배에 참석하지만 교회 안에서 깊은 사귄을 가지지 못하는 성도님도 많이 계십니다. 그러한 분들도 소그룹 나눔을 통해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나 은혜와 위로, 격려를 나누는 기회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그룹에서 발견한 신앙의 공감과 감동

- 강현은 권사

오랫동안 섬기던 부서를 그만두고 나니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는 것을 아쉽게 생각하여 소그룹 모임을 신청하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설교 말씀을 한 번 더 복습하는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조 모임에 참석하면서 성

도님 한 분 한 분의 믿음의 여정 이야기를 듣게 되면서, 그 이야기들이 얼마나 귀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각자 살아가는 모습은 다르지만, 각자의 여정 중에 만난 하나님의 모습은 너무나 비슷했고, 그 감동이 마치 나의 이야기처럼 여겨지면서 매주 소그룹 모임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신앙의 여정을 시작하며

- 조현수 집사

저 같은 모태신앙의 경우, 오랫동안 교회 설교나 TV, 라디오, 유튜브, 신문 등을 통해 수직적으로 말씀을 공급받아 왔습니다. 그래서인지 그런 방식이 점점 식상하게 느껴졌습니다. 말씀의 수직적 관계와 함께 다양한 세대들이 삶의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겪는 어려움과 내면의 갈급함을 수평적으로 나눌 수 있는 소통의 창구가 절실했습니다. 이를 통해 제 신앙의 방향성을 점검하고, 일상에서의 답답함도 조금이나마 지워내고 싶었습니다. 소그룹 모임에서는 성별, 세대, 연령, 신앙 연륜을 초월한 만남 안에서 순수하게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 좋았습니다. 특히 직장 내의 어려움이나 경제적 문제 같은 현실적인 난제에도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믿고 이겨나가는 모습은 놀랍고 감동적이었습니다. '욥기에서 시편으로'라는 메시지처럼 각자의 삶에서는 '욥'이자 '다윗'이지만, 예배자로 있을 때 '탄식과 신음의 기도'가 '감사와 찬양의 언어'로 바뀌는 경험을 함께 맛보며 간증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에 담긴 역설적인 진리, 즉 찬란함(화려함) 속의 아픔을, 투박함(상처) 속의 깊음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어서 유익했습니다. 또한 참된 신앙인의 생명력은 '주님과의 동행'에서 비롯됨을 깨달았습니다.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이 각자의 소명을 수행하며 꽃처럼, 나비처럼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은 마치 주님의 정원을 가꾸는 것처럼 아름다웠기에, 이 소중한 시간이 매주 기다려졌습니다.



소그룹에서 만난 신앙의 선배들

- 조경순 성도

저는 모태신앙이지만 교회 생활을 못 하다가 오빠의 권유로 영락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 등록한 지 12년 만인 올해 3월에 세례를 받았고, 오빠가 소그룹 모임을 신청해 주어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모임에 처음 참석했을 때는 낯설어서 두렵고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러나 각자의 기도 제목을 나누는 시간에 제가 세례를 받은 후 느끼는 중압감에 관해 이야기하게 되었고, 마음속 이야기를 털어놓으면서 기분이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옆에 계신 권사님께서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시며 기도해주겠다고 하셔서 힘이 되었습니다. 매주 소그룹 모임을 통해 짧게라도 매일 기도하기, 주일 성수하기, 성경 읽기 등 작은 목표를 세우며 실천하게 되었고, 교인이 지녀야 할 책임감이나 부담감을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임 덕분에 설교 말씀에 더 집중하게 되었고, 신앙의 선배님들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동생과 함께한 신앙의 여정

- 조민태 안수집사

저는 교회의 여러 부서에서 봉사하다 보니 늘 시간에 쫓겨서 동생이 교회에 와도 제대로 챙겨주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다가 서로 이야기라도 나눌 기회를 만들고자 소그룹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첫 모임에서부터 다른 분들이 저희를 편하게 대해주시고 교회 생활에 어려움을 느끼는 동생에게 그것이 오히려 귀한 마음이라고 격려해주셔서, 동



생이 모임에 잘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저도 동생에 대한 걱정과 미안한 마음을 덜 수 있었습니다. 소그룹은 삶에서 겪는 어려움을 나누고 신앙의 중심을 잡을 수 있게 도와주는 분들이 계셔서, 교회 생활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만난 소그룹의 은혜

- 이경애 집사

제 아들은 사랑부에 다니고 있습니다. 아들이 사랑부 프로그램을 추가로 하게 되면서 그 시간을 활용해 저도 소그룹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아들을 기다리는 동안 소그룹에 참석하겠다고 생각했지만, 점차 그 은혜를 나누는 과정에서 제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일 예배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소그룹에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은 또 다른 기다림의 시간이었습니다. “은혜는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소그룹을 통해 서로의 대화를 나누며 만들어 가는 것이다”라는 메시지도 인상 깊게 다가왔습니다. 또한 어버이날을 맞아 손주가 “색종이와 비즈로 이것저것 만들어봤는데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어요”라고 했으며,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 하시던 권사님의 이야기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아는 이가 없이 지내던, 다소 살갑지 않은 내게 누군가를 알아가는 것이 때로는 큰 은혜로 다가올 수 있음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함께 교제하게 하심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준 소중한 공동체였습니다.

영적 갈급함 속에서 만난 소그룹의 은혜

- 안병수 권사

코로나 팬데믹 동안 남편을 따라 타지 생활을 하게 되어 성도의 교제가 부족해지면서 영적으로 갈급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교구의 금요권찰 소그룹에 참여하게 되었고, 주일 소그룹 모임에도 조심스럽게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서먹하게 시작했지만, 주일 예배의 본문 말씀과 각자의 일상, 그리고 묵상한 내용을 나누면서 기쁨이 배가 되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도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은 제게 있어서 개인적으로 영적 성장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구역장으로서 일방적인 전달방식이 아닌, 구역식구 한 분 한 분의 삶과 생각을 나누고 이해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힘을 얻고, 은혜의 깊이를 더욱 맛볼 수 있었던 이 소그룹 모임은 참으로 귀한 나눔의 시간이었습니다. **만남**

하반기 주일 소그룹 모임 안내

9월 8일부터 매주일 오후 1:30
선교관 지하(제2식당)

- 주일 예배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성도 누구나 -

하나님의 평화를 전하는 아름다운 발걸음



저는 하나님을 믿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적이 없어요. 모습을 뵈은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제가 마음속 깊이 필요하다고 느낀 것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셨기 때문에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영락교회를 많이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께서는 119 말씀묵상, 오이코스 성경통독, 주일예배, 수요일기도회, 금요일기도회, 새벽기도 등을 영상으로 활성화시키는 큰 은혜를 주셔서 너무 감사, 감사하지요.

2024년 하계올림픽이 프랑스 파리에서 열렸습니다. 우리나라와 시차가 있어 비몽사몽 상태로 세 시간 동안 개막식을 시청했습니다. 국기와 전통 의상을 입은 각 나라의 선수들과 임원들이 센강을 따라 에펠탑 아래로

배를 타고 입장하는 모습을 보며, 전 세계가 하나로 연결되는 감동을 느꼈습니다. 성화 봉송이 이어지며 가수 에디트 피아프의 옛 음악이 흘러나올 때는 눈물이 흐르며 온 세계가 하나 되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개최사를 읽는 IOC 위원장도 평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전 세계에 평화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개막식을 마친 후 곧바로 새벽기도를 드렸는데, 놀랍게도 그날의 새벽기도 주제는 ‘발이 아름다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모인 선수들이 희망과 꿈을 펼치려고 걸어온 발걸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사야 52:7절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오이코스에 담으신 7월 27일 새벽기도의 말씀처럼, 부족한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평화의 메시지를 마음 깊이 새기며, 이 글을 통해 그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다음 올림픽이 열리는 LA에서는 한 나라도 빠짐없이 참여하는 진정한 평화의 올림픽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산을 넘는 아름다운 발걸음으로, 평화가 온 세상에 퍼지기를 소망합니다. **만남**



홍신실 성도
강동·송파교구

터닝 포인트 ‘하나’로는 부족합니다

종로구 옥인동 47-280, 제가 만 23년을 보낸 집의 주소입니다. 그 동네 가장 꼭대기 집에서 세 번째가 우리 집이었습니다. 정확히는 다른 집들과 함께 거주하는 (요즘은 보기 힘든 ‘한 집에 세 가정이 함께 사는’) 집이었습니다. 아직도 기억하는 그 집은 보증금이 100만 원에 월세 12만 원으로 처음 들어갔을 때부터 동결된 집의 가격이었습니다. 좋은 노부부를 만나 그렇게 오랫동안 살 수 있었습니다.

IMF 시절에 흔한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직장에서 정리해고를 당하셨고, 뚜렷한 직업을 구하지 못한 채 카드 돌려막기로 살았던 집은 어느새 빛이 많이 늘어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새벽마다 야쿠르트 배달도 하시고 우유 배달도 하시면서 우리 삼 남매를 키우셨습니다. 그런 현실 가운데 저는 중학교에 들어가게 됐고 남녀공학을 벗어나 처음으로 ‘남자 중학교’ 생활을 하게 됩니다.



강주심 전도사
성동·광진교구
고등부, 문화선교



강주심 전도사가 머물렀던 집

남자들만 있는 곳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약해 보이면 바로 잡아먹히는 것입니다. 저는 또래 중학생들보다 키도 훨씬 작았고 성격도 무척 소심했습니다. 중학교 3학년 키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149cm, 그래서 소위 노는 친구들의 놀림거리가 됐고, 점점 그런 친구가 아닌 아이들도 저한테 짓궂게 장난치는 것을 이상하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왕따’가 됐습니다.

그랬던 저의 중학교 3학년, 여름수련회 때 예수님은 갑자기 찾아오셨습니다. 아무도 친구가 되어주지 않는 상황, 부모님뿐 아니라 나이 차가 많아서 서로를 신경 써줄 수 없는 삼 남매, 그런 저에게 예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며 찾아오셨습니다. 제게 친구 되어 주시고 아버지 되어주신다 약속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제 인생의 ‘첫 번째 터닝포인트’가 찾아왔습니다.

물론, 이후로도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만 이전에 억눌려있던 성격이 활달한 성격으로 바뀌며 친구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집의 가난이나 주변 환경이 전혀 변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이후 신학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어려서부터 가난했던 저는 돈을 많이 벌고 싶었지만, 대학에 들어가면 술을 강제로 먹이는 대학 문화가 싫어서 먼저 신학대로 갔다가, 이후 대학원이나 다른 쪽으로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신학을 공부하며 점차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알아가는 시간이 쌓이면서, 제가 무척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돈을 아주 많이 벌고 싶다는 욕심과 함께 '내가 과연 목사가 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이를 놓고 3학년 내내 고민하며 기도하는 제게 하나님이 주신 응답은 '마태복음 6장 24~25절'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나"



그러면서 이전에 가난했던 시절 한 번도 저를 굶긴 적 없었고, 해진 옷 입은 적 없게 하시고, 밖에서 노숙한 적 없게 하신 하나님을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결국 돈을 추구했던 예전의 내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드리고자 결심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제 인생의 '두 번째 터닝포인트'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에 따라 여전히 저를 굶기지 않으시고 노숙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후 지금 전도사를 하고 목사를 하겠다고 다짐하기까지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것 같을 때마다, 성령님은 저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욕심도,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심도, 억울함을 못 참는 마음마저, 하나님은 그때마다 저에게 '터닝포인트'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말씀이 기억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언제 만나셨습니까? 만일 그것이 어떤 시준의 여름수련회인가요? 그렇다면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여러분이 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해야 합니다. '어제도 만났고 지금도 만나고 있습니다' 언젠가 과거에 만났던 예수님에 머물지 않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저도 이와 같은 마음을 품습니다. "터닝포인트 '하나'로는 부족하다. '매일' 터닝포인트와 같은 삶을 살아야겠다" 이 글을 읽는 모든 성도님도 하나님과 날마다 함께하는 터닝포인트의 삶을 사시길 기도합니다.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단비를 누리며,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더욱 중요한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만남**

폐허에서 다시 복음의 여정으로 - 사도바울 선교 성지 순례를 다녀오며



습관적인 예배와 기도 속에서 신앙의 본질을 잃고 매너리즘에 빠져가던 즈음, 성서지리 성경공부반에서 '사도바울 선교 성지순례'에 함께 하자고 권유받았습니다. 나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초대를 받아들여 순종하는 마음으로 참여했습니다. 이후림 목사님을 비롯한 성지순례 대원들은 6월 5일부터 15일까지 동양과 서양이 만나는 곳, 튀르키예와 그리스에서 사도 바울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신앙을 회복하고 주님을 새롭게 만나게 될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이스탄불 공항에 도착하니, 마치 우리를 초청하신 성령님께서 바울, 빌립, 스테반 등 믿음의 선진과 함께 마중 나와 두 팔 벌려 환영해 주시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도착한 시간은 오후였고, 보스포러스 해협과 골든혼(금각만)의 아름다운 석양이 이슬람 사원의 돔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광경에 감탄하던 순간도 잠시, 이것이 교회의 십자가였으면 하는 아쉬움으로 마음이 씩씩했습니다.

담대하고 절박한 신앙의 피난처, 괴리메 동굴교회

이어서 방문한 곳은 카파도키아에 있는 괴리메 동굴교회(사진 1)였습니다. 이곳은 침식된 암석으로 이루어진 계곡으로, 기독교가 공식적으로 인정받기 전, 로마와 이슬람의 박해를 피해 기독교도들이 신앙

을 지키며 생활했던 곳입니다. 한때는 1년 365일을 상징하는 365개의 암굴 교회가 있었으나, 지금은 30개 정도만 공개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교회의 존재를 숨기기 위해 출입문을 최대한 좁게 만들었지만, 그 안은 놀랍게도 꽤 넓은 공간이었고, 각 방의 벽과 천장에는 선명한 채색의 성화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언제 들킬지 모르는 불안 속에서도 성화로 그려진 예수님을 바라보며 신앙을 지켰던 그들의 모습을 보며, 주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 생각하게 되었고, 모든 것이 갖춰진 환경에서도 늘 흔들리는 나의 믿음을 되돌아보며 회개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깊은 우물, 지하 도시 데린쿠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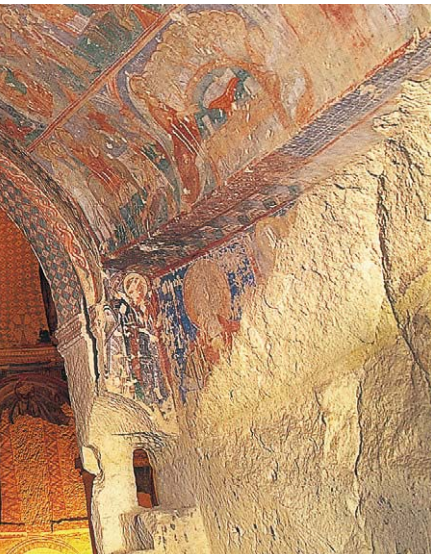
조그만 시골 마을에 있는 데린쿠유(사진 2)는 지하 도시로 유명합니다. 종교 탄압을 피해 바위에 굴을 뚫고 살다가 지하 20층 깊이로 건설된 도시입니다. ‘데린쿠유’의 뜻은 ‘깊은 우물’이라고 합니다. 이름처럼 우물을 깊이 파서 식수를 얻었고, 그 물을 각 층에 구멍을 뚫어 공급했다고 합니다. 로마의 박해를 피해 만들어진 피난처로, 예루살렘에서 안타키아와 카이르를 거쳐 온 기독교인들이 정착했습니다. 내부 통로에는 로마 군인의 침입을 차단하는 시설도 갖추져 있었습니다. 내부는 상당히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어 길을 잃기 쉬우니 조심하라는 가이드의 농담에 잠시 웃기도 했지만, 열악한 환경에서 믿음을 지켜온 교인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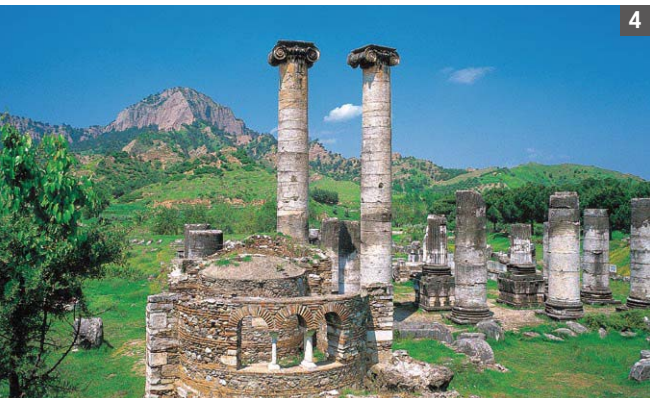
무려 약 280년 이어진 박해 속에서 어떻게 배교하지 않고 견뎠을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했으리라 믿

습니다. 오늘 아침예배 설교 말씀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은 성령님”이라고 하신 목사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동시에 우리에게도 같은 성령님이 계셔서 감사했습니다. 타협의 대상이 아닌 진리, 영원한 생명인 복음을 깨닫고, 현실을 뛰어넘는 그들의 삶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는 더만 남은 초대교회들과 믿음의 유산

또다시 먼 길을 달려 도착한 곳은 비시디아 안디옥의 ‘사도바울기념교회 터’였습니다. 이곳에서 바울은 “믿음으로서 의롭다 칭해진다”라는 ‘이신칭의’ 설교를 처음 했고, 이방인 선교를 위해 헌신을 결단하며 기도했음을 기억했습니다. 우리 대원들도 설교단 앞에서 그 땅에 복음이 다시 회복되기를 통성으로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이어 라오디게아교회(사진 3), 빌라델비아교회, 사데교회(사진 4)를 방문했습니다. 성경 속 장소에 직접 와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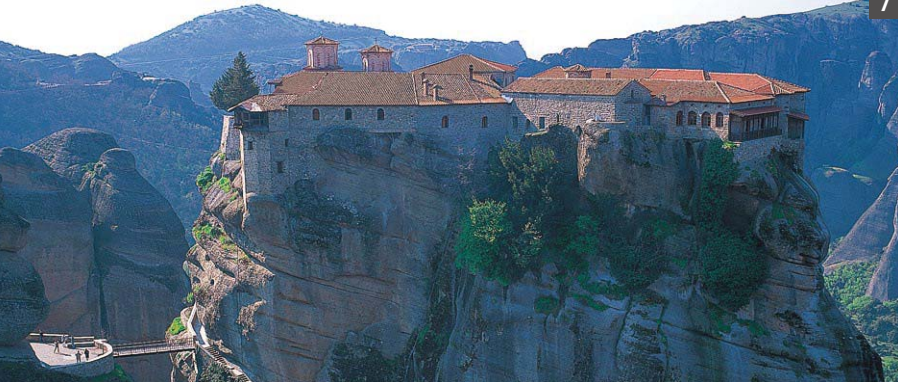
는 신기함도 잠시, 지금은 폐허가 되어 돌덩이들만 남아 있는 이곳을 보며, 과거의 영광이 사라지고 국민의 98%가 이슬람교를 믿고 있다는 현실에 안타깝기만 했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초대교인들의 초심을, 우리 영락교회와 한국 교회가 어떻게 회복하고 지켜야 할지 깊이 고민하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주님의 영원하심과 인생의 유한함을 깨닫는 여정

에페소는 상업의 중심지로, 정복자가 바뀔 때마다 다양한 문화를 받아들여 발전한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중 가장 인상적인 건축물은 셀수소서관(사진 5)이었는데, 헤라클레스 문에서 셀수소서관까지는 대리석으로 조성된 길, 각종 모양의 짐승 조각, 그리고 주변 상가와 길 좌우 인도 바닥의 모자이크로 장식되어 당시의 엄청난 부와 아름다움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팍스 로마나’로 요약되는 로마 제국의 막대한 권력과 풍요도 결국 역사 속으로 저물었음을 생각하자, 주님의 영원함 앞에서 한없이 유한한 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되어 저절로 마음이 겸손해졌습니다. 이어 방문한 곳은 무려 2만 4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원형 대극장이었는데, 이곳이 성도들을 사자의 먹이로 내던진 핍박의 현장이었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먹먹해지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리스에 도착한 후 우리는 아테네로 향했습니다. 아크로폴리스는 유네스코 문화유산 1호답게 엄청난 유적들로 가득했습니다. 파르테논 신전, 헤로테스 아티쿠스 음악당, 물물 교환을 했던 아고라(시장) 등 여러 유적 중에 시선을 멈춘 곳은 아레오파고스 언덕(사진 6)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스토아학과와 논쟁을 벌였다는 바로 이곳에서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을 것을 상상하니 절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이어 방문한 고



사진제공 김한기 은퇴집사(사진작가)

린도 운하는 물류 교통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암벽을 파고 만들었다고 합니다. 놀라운 스케일에 ‘헉!’ 하고 입이 벌어져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해발 613m에 있는 메테오라 수도원(사진 7)에 도착했을 때, 신앙적 절개를 지켜온 역사 현장을 보며 모두가 숙연해졌습니다. 찻대 모양의 바위 꼭대기에 있는 이 수도원은 정말 경이로웠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는 유럽 기독교 최초 지역 빌립보교회, 바울과 실라가 갇혔던 지하 감옥을 둘러 보았고,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가 세례받은 강가(사진 8)에서는 성찬식을 가졌습니다. 주님의 피와 살로 거듭남을 감사하며, 순종의 삶을 결단하는 시간을 이 의미 있는 장소에서 보내니 마음의 울림이 더욱 컸습니다

주님이 동행하신 순례의 여정을 마치며

바울은 증인된 자와 사명자의 삶을 보여준 인물입니다. 성지를 순례하며, 바울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을 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위로받고 풀려났던 일과, 성령님이 바울의 사역에 필요한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신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박해를 받지 않고, 풍족한 환경과 자유로운 예배 속에서 신앙의 갈급함을 잊고 살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번 성지순례를 통해, 우리도 주님의 상속자로서 바울처럼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명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도 바울을 본받아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다시 복음으로 행진해 올라가기를 결단했습니다. **만남**

양해경 권사
노원교구





책(Book)을 읽고 감동을 적어 나누는 2024 북적북적 독서행사 공모전

공모주제

Ⅰ 일반부문 Ⅰ

성경적 세계관으로 바라보는 세상

Ⅱ 환경적 따라살기부문 Ⅱ

환경적 목사님의 생애를 통해 본 성경적 세계관의 실천

응모기간

2024년 9월 1일(주일) ~ 9월 30일(월)

응모대상

중·고등학생, 대학생, 청년, 장년

응모부문

Ⅰ 환경적 따라살기부문 Ⅰ



A4 10매 내외, 글자폰트 12, 줄간격 160%
▶ 서론-본론-결론을 갖춘 자유형식

Ⅱ 일반부문 Ⅱ



독서감상문
A4 2~3매 내외, 글자폰트 12, 줄간격 160%



회화, 웹툰
JPG 파일 (수상자는 원본 제출)



UCC, 메타버스
분량 : 3분 이내, 500MB 이하, 해상도(1280X720)
파일형식 : AVI, MPEG, WMV



자유형식
제시된 주제와 선정도서를 참고하여 자유형식으로 표현

선정도서

Ⅰ 환경적 따라살기부문 Ⅰ

「환경적 목사님의 생애를 통해 본 성경적 세계관」 관련 자료 (요청 시 파일 제공)

Ⅱ 일반부문 Ⅱ

중·고등부

1. 「푸른 바람이 너를 기다려」, 서지성, 이미아직, 2023
2. 「크리스천 청소년들이 꼭 알아야 할 세계관」, 정소영, 미래사CROSS, 2019
3. 「기독교 세계관이 필요해」, 정석원, 홍성사, 2023

※ 중·고등부 응모자는 선정도서 신청 시 무료 배부(반드시 응모부문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

일반부

1. 「성경적 세계관 강의」, 최용준, CUP, 2020
2. 「코끼리 이름 짓기」, 제임스 사이어, IVP, 2007

수상자 발표 11월 3일(주일)

시상식 11월 10일(주일) 찬양예배(영락교회 본당)

시상내역

환경적 따라살기부문	구분	중·고등부	일반부
	대상	아이패드 1명	아이패드 1명
최우수상	문화상품권 50만원 4명	문화상품권 70만원 1명	
우수상	문화상품권 30만원 7명	문화상품권 50만원 2명	
장려상	문화상품권 20만원 9명	문화상품권 30만원 3명	
참가상	문화상품권 5천원	-	
일반부문	구분	중·고등부	일반부
	대상	아이패드 2명	아이패드 1명
최우수상	문화상품권 15만원 19명	문화상품권 30만원 2명	
우수상	문화상품권 10만원 25명	문화상품권 20만원 3명	
장려상	문화상품권 5만원 34명	문화상품권 10만원 3명	
참가상	문화상품권 5천원	-	

수상작 전시 11월 10일(주일) ~ 11월 23일(토)

응모방법

전자우편(clibmi@naver.com) 또는 도서관에 직접 제출
접수 시, 파일명은 '성명_제목'으로 제출, 작품 표지에 소속·성명·연락처 기재
문의 : 02-2280-0293

중·고등부 선정도서

「기독교 세계관이 필요해」 정석원, 홍성사, 2023

창조·타락·구속의 이야기를 일상의 믿음과 연결된 20가지 키워드로 알기 쉽게 풀어, 디딤돌을 하나씩 밟아가면서 믿음에 대해 돌아보고, 정확하게 정립하도록 돕는 내용을 담았다. 믿음의 여정에서 처음 만난 기독교 세계관은 시시각각 변하는 여정 가운데 믿음의 눈을 갖게 하고 분명한 목적지를 밝혀준다.



「푸른 바람이 너를 기다려」 서지성, 이미아직,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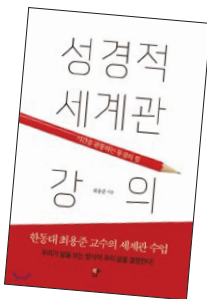
오늘날 청소년들에게 기독교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그들의 눈높이와 언어로 풍성히 대화할 수 있도록 구성된 영적 여행지도 매뉴얼과 같다. 단순한 기독교 교리만이 아닌, 다음 세대가 매일 마주하는 삶의 구체적인 현실에서 복음을 만나면 일어나게 되는 행복한 일상과 비전을 보기 원하는 모든 청소년에게 매우 매력적인 선물과 같은 책이다.

「크리스천 청소년들이 꼭 알아야 할 세계관」 정소영, 미래사CROSS, 2019

청소년들에게 자신은 어떤 세계관으로 살아왔고 또 앞으로는 어떤 세계관으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하게 한다. 특별히 10대 청소년은 물론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들이 자녀와 함께 읽어 보기를 권한다. 수많은 선택과 가치 판단의 순간에 후회 없이 살아가도록 안내하는 가이드가 될 것이다.



일반부 선정도서



「성경적 세계관 강의」 최용준, CUP, 2020

한동대 기독교세계관 수업교재인 이 책은 대학생과 청년들이 기독교 세계관에 관한 개념을 정리할 때 도움이 된다. 이 책을 통해 기독교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성경적 세계관의 내용을 확인하고 보충할 수 있을 것이다. 저자는 성경의 세계관을 창조·타락·구속·완성 이 네 단계로 소개한다. 간결 명료하면서도 실제적이다. 무엇보다 성경을 바탕으로 세계관의 논지를 풀어낸 점이 특별하다.

「코끼리 이름 짓기」 제임스 사이어, IVP, 2007

지난 30여 년간 세계관을 연구해 온 저자가 세계관 개념의 역사, 그동안의 세계관 논의에 대한 반성과 성찰을 담아 세계관 개념을 다시 세웠다. 저자는 한 사람이 품고 있는 실재관의 근본 토대에는 본인의 인생관 전체를 떠받치고 있는 코끼리가 놓여 있으며 그 코끼리에 어떤 이름(하나님, 우주, 신의 불, 허공...)을 붙이는지가 우리 세계관의 가장 중요한 측면이라고 말한다.



고형석 협동선교사, 싱가포르한인교회 부임 영락과 선교적 동역 관계 이어가

지난 7월 10일(수) 열린 파송식을 통해 싱가포르 선교사로 파송 받은 고형석 목사가 8월 4일(주일) 부임지인 싱가포르한인교회에서 담임목사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사역에 들어갔다. 1980년 8월 3일 한경직 목사 인도로 창립예배를 드림으로써 시작된 싱가포르한인교회는 영락교회와 44년째 선교적 동역 관계를 이어가면서 동남아 선교의 축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초대 강진선 목사와 2대 손중철 목사는 영락교회 파송선교사로, 3대 황창선 목사와 4대 황재우 목사는 협동선교사로, 5대 윤장훈 목사는 파송선교사 및 협동선교사로 사역을 이어왔으며, 그동안 새문안교회 부목사로 시무하다 6대 담임목사로 부임한 고형석 목사는 협동선교사로서 목회 및 선교 사역을 펼칠 예정이다. 싱가포르한인교회 창립 44주년 기념주일이었던 8월 4일 11시 30분(현지 시각) 44주년 기념예배를 겸해 드려진 취임식에는 본 교회



김운성 위임목사와 선교전담 조두형 목사, 선교부장 김재완 장로를 비롯한 선교부 임원진, 3여전도회 회장단 등이 함께 참석했다. 이날 예배에서 김운성 목사는 사도행전 20:17~21절 말씀을 바탕으로 '그들이 거기 있었던 이유'라는 설교를 통해 40년이 넘게 이어진 동역 관계에 감사하며, 새로운 담임목사를 맞이한 싱가포르한인교회 성도들에게 축복의 말씀을 전했다.

개교 20주년 맞은 진승중학교, 명문 미션스쿨로 성장

8월 5일(월)에는 인도네시아 바탐에서 진승중학교 개교 20주년 기념예배가 열렸다. 마침 전날이었던 8월 4일은 20년 전 우



리 교회 중등부 정진우, 이승구 학생이 현지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날로, 이날의 기념식은 그 의미를 더했다. 김운성 목사는 '가장 아름다운 열매(요한복음 12:24)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진우와 승구의 뜻을 기리고자 세워진 진승중학교를 통해 하나님께서 위대한 열매를 맺고 계신다"라고 전했다. 이날 기념예배에는 이승구 학생의 부모인 이경석 집사와 이미선 집사가 함께 참석하여 특별 장학금을 전달하는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으며, 우리 교회 3여전도회에서는 지난 7월 진승학교의 노후된 지붕과 누수 문제 해결을 위해 특별 재정지원을 펼치기도 했다.

미얀마에 <테딤어 신약성경> 2천150부 기증

우리 교회가 지난 2018년부터 미얀마 소수부족인 테딤족 선교를 위해 후원한 <테딤어 신약성경> 개정 번역과 제작이 6년 만에 결실을 맺었다. 선교부(부장 김재완 장로)와 대한성서공회(총무 호재민 목사)는 지난 8월 14일(수) 경기도 용인에 있는 대한성



서공회 반포센터에서 <테딤어 신약성경> 기증식을 가졌다. 성서공회는 이날 기증된 2천150부의 <테딤어 신약성경>을 태국 치앙마이를 통해 테딤 부족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미얀마는 약 135개의 소수민족으로 이루어진 다민족 국가로 전체 인구 중 기독교인은 약 6%에 불과하지만, 미얀마의 기독교는 소수민족을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다. 미얀마 서쪽에 거주하는 소수민족인 테딤 부족의 인구는 15만 명 정도로 지난 1934년 첫 테딤어 성경이 출간됐지만, 현재는 사용하지 않는 고어(古語)가 다수인 탓에 지금의 테딤 부족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는 큰 제약이 있었다. 축하 영상을 보내온 코이 람 탕 미얀마성서공회 총무는 “영락교회가 보내준 성경은 미얀마인에게 선교사가 되어 다가올 것”이라며 감사를 전했다.

제1여전도회, 능산교회 선교관 헌당예배

제1여전도회(회장 장은희 권사)는 지난 8월 8일(목) 전라남도 신안군 하의면에 있는 능산교회(박철오 목사 시무, 목포노회 소속)에서 선교관 헌당예배를 드렸다. 이날 예배에는 선교부 조두형 목사와 제1여전도회 회장단, 선교부 임원들이 참석했다. 이은혜 권사(1여 부회장)의 대표기도로 시작된 헌당예배에서는 조두형 목사가 요한복음 12:24절을 본문으로 한 알의 밀이 땅에라는 말씀을 전하고, 박철오 목사가 선교관 건축 경과를 보고하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능산교회는 지난 3월, 교회부지와 건물을 노회 유지재단에 편입하는 과정에서 관할 관청으로부터 교회 화장실 및 샤워실 철거명령을 받게 되었다. 이에 따라 화장실이 딸린 선교관 건축이

필요하다는 능산교회의 청원을 접한 1여전도회는 총 5,900만원의 건축비 지원을 결의했고, 8월 6일 선교관이 완공되었다. 1여전도회는 공사대금 이외에도 200만 원 상당의 냉장고를 기증하여 능산교회 선교관 건축을 도왔다.



경천애인(敬天愛人)의 신앙...이철신 원로목사 주일예배 설교

이철신 원로목사가 지난 7월 21일과 28일 2주간에 걸쳐 주일 1~3부 예배의 말씀을 전했다. 여름휴가와 기도주간에 들 여간 김운성 위임목사를 대신해 설교를 맡은 이철신 목사는 2018년 2월 위임목사직 은퇴 이후 6년 만에 주일 강단에 섰다. '하나님 사랑'(마태복음 22:37~38)과 '이웃 사랑'(마태복음 22:39~40)을 주제로 말씀을 전한 이 목사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경천애인'이라는 한자어로 집약하면서, 경천애인의 정신이야말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주제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하나님 사랑을 통해 우리는 평강과 지혜, 정결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면서, 이웃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성도들 마음의 평안과 공



동체의 화목이 넘치기를 축복했다. 이철신 목사는 은퇴 후 북한 교회 재건과 복음통일을 위한 기도사역에 전념하고 있다.

내일을 위한 거룩한 준비...79주년 광복주일예배

교회와 성도들은 광복절 79주년을 맞아 8월 11일(주일)을 광복 주일예배로 드리며 광복의 참된 의미와 나라사랑의 정신을 공유했다. 이날 김운성 목사는 '내일의 눈으로 오늘을 보다(예레미야 24:1-10)' 제목의 설교를 통해 "거룩한 기도와 염려로써 내

일을 준비하며 오늘을 살아가자"라고 전했다. 예배에 참석한 회중들은 애국가 제창을 하며 나라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다짐했다.

교역자 동정



권혁일 목사 사임, 한남대 기독교학과 교수로 부임

동대문·중랑교구와 영락수련원을 맡아 사역해 온 권혁일 목사가 8월 25일(주일) 본 교회를 사임하고, 대전 한남대 영성신학 교수로 부임했다. 지난 2019년 1월 본 교회 부목사로 부임한 권혁일 목사는 강동·송파교구를 시작으로, 관악·동작·금천교구와 동대문·중랑교구, 예배위원회(기도), 갈릴리찬양대 등을 맡아 사역했다. 특히 시무 기간 줄곧 영락수련원 담당 목사로 섬기며 영성 사역에 힘써왔다.

전교인 성경통독 사경회...오직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전교인 성경통독 사경회가 권사회(회장 송정심 권사) 주관으로 8월 19일(월)부터 23일(금)까지 50주년기념관 503호에서 열렸다. 매일 오전 9시부터 5시까지 사경회를 인도한 최재선 목사(안양수원교구)는 신·구약 성경 전체를 일목요연하게 개관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오직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강조했다. 이번 사경회는 폭염에도 불구하고 참여한 150여 명 성도의 말씀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5일간 펼쳐진 권사회 임원들의 헌신적인 수고와 섬김으로 풍성한 말



씀 축제가 되었다.

한편 권사회에서는 회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조성된 후원금을 작년에 이어 올해도 80주년기념사업회에 기부했다.

2024 여름 포이메네스 목회자 영성수련



목회자들을 위한 '여름 포이메네스 영성수련'이 지난 8월 11일(주일)부터 16일(금)까지 영락수련원에서 한경직목사기념사업회 주최로 열렸다. 김운성 목사(안양수원교구)와 이철신 목사(안양수원교구)가 말씀과 목회강의로 참여한 목회자들을 격려했다. 이어 연세대 정용한 교수가 성서강의, 권혁일 목사가 영성강의를 진행했다.

연합과 동역의 축복! 남선교회 헌신예배

남선교회 헌신예배가 지난 7월 21일(주일) 오후 찬양예배 시간에 본당에서 열렸다. 서울노회 남선교회연합회 순회헌신예배를 겸해 드린 헌신예배는 조병준 장로(1남선교회 회장) 인도로 시작되어 조규선 장로(연합회 부회장) 기도, 이화영 목사(금호교회) 설교('그날이 온다' 이사야12:1-2), 특별봉헌과 사역보고 순으로 이어졌다. 남선교회 회원들은 헌신의 마음으로 함께 이루어가는 동역자가 될 것을 다짐했다.



‘복지사역과 인공지능’ 세미나

영락사회복지재단(이사장 박홍준 장로)은 지난 7월 17일(수) 임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복지사역과 인공지능(AI)’를 주제로 미래발전 전략세미나를 개최했다. 향후 AI 서비스 기반의 미래지향적 복지시스템 구축을 위해 마련된 이번 세미나에선 네이버 나군호 소장이 ‘생성형 인공지능시대의 디지털 헬스케어(Digital Healthcare Age of Generative AI)’, 네이버 옥상훈 부장이 ‘클로버 케어콜 서비스’를 주제로 발표했다.

용산장애인복지관, 장애인 e스포츠 페스티벌 개최

영락사회복지재단이 위탁 운영 중인 구립용산장애인복지관은 지난 8월 16일(금) 숙명여대 눈꽃광장홀에서 ‘용산 장애인 e스포츠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카트라이더 드리프트, FC 온라인, 리그오브레전드 등의 게임으로 진행된 e스포츠 페스티벌은 예선전에 통합 120명의 신청 수를 기록했다. 재단은 이번 행사를 통해 장애와 비장애를 뛰어넘어 e스포츠로 하나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향후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펼치겠다는 뜻을 밝혔다.



강신만 은퇴장로 별세

강신만 은퇴장로가 지난 8월 22일(목) 향년 84세로 별세했다. 1940년 경북 영주에서 출생한 고인은 2000년 12월 집사 안수, 2008년 12월 제37회 시무장로로 장립된 후 2010년까지 당회원으로 섬겼으며 청년부 영여성경부장, Cebc 부장, 감사위원장, 영락사회복지재단 서기 이사, 설악산수양관 운영위원장을 역임했다. 고인의 장례예배는 24일(토) 오전 8시 30분에 본당에서 김운성 목사 집례 가운데 교회장으로 엄수됐다. 최한윤 목사의 인도로 시작된 장례예배는 정천우 장로의 기도, 김운성 목사의 설교(요한계시록 21:1~7, '하나님의 아들이 되다'), 조성환 장로의 조가, 정성건 장로의 고인 약력 소개, 이명호 은퇴장로의 조사, 이철신 원로목사의 축도 순으로 진행됐다. 장례예배를 마친 후, 장자인 영락동산에서 최한윤 목사 집례로 드려진 하관예식을 끝으로 고인은 영면에 들어갔다. 유족으로는 원길자 은퇴권사와의 사이에 1남 1녀를 두었다.



차세대 크리스천 언론인 및 기자 양성을 위한

영락기자학교 수강생 모집

모집기간

2024년 8월 25일(주일)
~ 9월 7일(토)

개설기간

2024년 9월 22일 ~ 12월 8일(12주)
매주일 16:00~18:00



← 신청하기



강의장소

- 봉사관 404호

모집인원

- 30명(부서장 혹은 담당 목사의 추천을 받은 사람 우대)

지원자격

- 홍보출판부 기자로 활동할 성도
- 교회학교 학생 및 교사
- 일반성도(부서활동자 혹은 예정자)

전형방법

- 서류, 필요시 면접

접수방법

- 구글 양식 온라인 접수, QR코드 스캔

문의

- 홍보출판부 02-2280-0197, 010-7442-2694

수강료

- 50,000원(합격자에 한해 납부)

기자학교 커리큘럼 및 강사진

※기자학교 대다수 강사진은 'FN뉴스' 관계자로 구성됩니다.

일 정	강의과목	강의 내용	강사
1주차 (9월 22일)	개강 및 오리엔테이션 미디어 변천사	기자학교소개 / 영락기자의 마인드 플랫폼에 맞는 글쓰기 (신문에서 영상까지, 매체 특성)	홍보출판부 양형욱 디지털콘텐츠실장
2주차 (9월 29일)	기사와 콘텐츠	지적 재산권의 힘 (타인의 저작물, 영상, 사진 사용에 대한 소유권분쟁)	이대율 콘텐츠사업부장
3주차 (10월 6일)	기사거리 찾기	날아다니는 콘텐츠 / 눈길 붙잡는 콘텐츠	김성환 사회부장
4주차 (10월 13일)	말씀이 있는 콘텐츠	은혜로운 소식 / 교회행사 스토리텔링 전달방식	박선이 前 조선일보 논설위원
5주차 (10월 20일)	컬럼쓰기	컬럼쓰기 / 기사 속에 생각 담기	조창원 논설위원
6주차 (10월 27일)	현장취재, 인터뷰	기획기사와 심층 현장취재 / 인터뷰	조은호 산업부 차장
7주차 (11월 3일)	편집하기	편집의 기본원칙 / 제목달기, 기사 작성	김정순 디지털뉴스부 부장
8주차 (11월 10일)	시야 놀자	시야에 말씀 넣기	장창일 국민일보 종교부 차장
9주차 (11월 17일)	영상 제작하기1	뉴스, 현장취재 / 사진, 영상 제작 이론	박범준 영상사진팀장
10주차 (11월 24일)	영상 제작하기2	쇼츠 제작 이론과 실습 / 영상 톨 다루기	최기원 영상미디어부 팀장
11주차 (12월 1일)	기자 실습	기사, 칼럼, 쇼츠 중 1개 저작물 제작, 발표 및 공유 (사전준비, 과제물)	윤경현 증권부장
12주차 (12월 8일)	교정과 교열 종강 및 수료식	말과 글 / 교정부호 맞춤법 수료증	홍종민 교열 부장 홍보출판부



대한영수교
광로교회

영락교회 | 홍보출판부



King David playing the Harp

1619-1640, 피터 폴 루벤스(Peter Paul Rubens)

다윗왕의 모습 통해 진실한 회개, 헌신 표현

플랑드르 바로크 화가인 피터 폴 루벤스의 작품 '하프를 연주하는 다윗왕'은 하늘을 바라보며 하프를 연주하고 있는 나이 든 다윗왕의 모습을 통해 그의 신앙과,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회개, 평생에 걸친 겸손한 헌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왕의 로브(robe)에서의 살짝살짝 반짝이는 표현, 명암의 대비를 극대화하는 등의 표현으로 루벤스만의 드라마틱하고 감정선을 포착해 내는 바로크 스타일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이 작품에서 루벤스는 파란만장하고 매력적인 외모의 다윗왕이 아닌, 나이 든 다윗왕의 모습을 그려내어 그의 삶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성찰과 그 순간을 표현하여, 감상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경건함과 헌신, 자신의 영적 여정에 대해 생각해보게끔 하고 있습니다. **만남**

글 정재원 편집위원

2024년 9월호 통권 606호

발행 2024. 09. 01.

발행인 김운성 / 지도목사 강승훈 / 편집인 김태영 / 편집장 권오란

편집위원 이형일 조지형 소남호 박선이 정용성 김성문 김윤영 류정현 안하윤 정재원

기자 김경옥 박진현 이재향 이현지 인 미 최윤미 / 사진기자 원종석 유승현 / 교열 김응기 이광미 조한아

발행처 영락교회 홍보출판부 / 주소 04552 서울시 중구 수포로 33 / 전화 02)2280-0114(대)

홈페이지 <http://www.youngnak.net> / 디자인 design D.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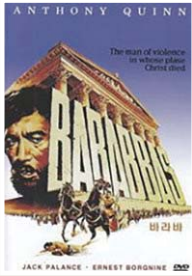


월간 '만남' e-Book

영락시어터 9월 상영 영화

(50주년기념관 B1 소강당, 주일 오후 2시)

9월 15일 추석 연휴로 쉽니다



바라바 (Barabba, 1961) 12 137분 1일

감독: 리처드 플레이서 출연: 안소니 퀴, 실바나 망가노, 아서 케네디, 커티 주라도

바라바는 예수 대신 석방되어 도적질과 폭력으로 가득했던 예전의 삶으로 돌아간다. 그러나 그가 총애 하던 창녀 라헬은 기독교도가 되어 돌에 맞아 죽는다. 사람을 죽이고 도둑질을 일삼는 삶을 계속하던 바라바는 다시 체포되어 평생 동안 광산 노역을 선고받는데...



프리윌리2 (Free Willy, 1995) ALL 95분 8일

감독: 드와이트 H. 리틀 출연: 제이슨 제임스 리처, 오거스트 쉘렌버그, 제인 앳킨슨

양부모와 함께 행복한 나날을 보내던 제시 앞에 친엄마의 사망 소식과 함께 남동생 엘비스가 나타난다. 제시는 엄마가 자신을 버려두고 다른 아이를 키웠다는 것만으로도 화가 나는데다, 동생 엘비스가 버릇 없고 허풍이 심한 골칫덩이여서 도저히 곱게 봐줄 수가 없는데...



7번방의 선물 (Miracle in Cell No.7, 2013) 15 127분 22일

감독: 이환경 출연: 류승룡, 갈소원, 박신혜

조직 폭력배, 사기꾼 등 화려한(?) 전과를 자랑하는 범죄자가 모인 교도소 7번방. 흉악한 범죄자들만 모여 있던 이 공간에 흉악범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이상한 '용구'가 들어오게 된다. 용구는 6세 지능을 가진 '딸 바보' 아빠로, 7번방 식구들은 이 의심스러운 흉악범 용구가 당황스럽지만, 어느새 용구의 순수한 마음에 이끌린다. 이들은 우여곡절 끝에 용구를 위한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게 되는데...



원더 (Wonder, 2017) ALL 117분 29일

감독: 스티븐 크보스키 출연: 제이콥 트렘블레이, 오웬 윌슨, 줄리아 로버츠, 이자벨라 비도빅

"넌 못생기지 않았어, 네게 관심 있는 사람은 알게 될 거야" 누구보다 위트 있고 호기심 많은 매력 부자이지만 남들과 다른 외모로 태어난 '어기'는 모두가 좋아하는 크리스마스 대신 얼굴을 감추고 즐길 수 있는 할로윈을 더 좋아한다. 10살이 된 아들에게 더 큰 세상을 보여주고 싶었던 엄마 '이사벨'(줄리아 로버츠)과 아빠 '네이트'(오웬 윌슨)는 '어기'를 학교에 보낼 준비를 하는데...



▶ 작품 내용은 56페이지에서
보실수 있습니다.

하프를 연주하는 다윗왕

1619~1640, 피터 폴 루벤스(Peter Paul Rubens)
